농협사료

2022
壬寅年
임 인 년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산농가와 함께, 드림파트너 농협사료



# 농협사료




2022
WINTER VOL.84

우수조합 탐방
충주축협

우수농가 탐방
늘푸른한우농장 / 정훈농장

아하! 그렇구나❶
2022년 달라지는 축산정책

아하! 그렇구나❷
한우 등급은 어떻게 결정될까?

**충주축협** 오후택 조합장

품질과 헌신으로 사랑받고, 변화와 혁신으로 선도하자

# 축산농가와 함께, 드림파트너 농협사료






CONTENTS

2022 신년호 VOL.84


04 2022년 신년사

07 2022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

08 스페셜 테마
범 내려온다

12 우수조합 탐방
충주축협

16 우수농가 탐방
늘푸른한우농장

20 WITH 농협사료
정훈농장

24 아하! 그렇구나①
2022년 달라지는 축산정책

26 아하! 그렇구나②
한우 등급은 어떻게 결정될까?

28 와우! 이런 곳이
Winter Story

32 농협사료 제품 소개

34 전문가 Q&A

36 농협사료 소식

38 전문가칼럼

50 '진심시리즈' 광고



**농협사료 2022년 신년호**

**통 권** 제84호 **발 행** 2022년 1월 24일 **발행인** 정상태 **발행처** 농협사료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528
TEL 02)6932-9815 FAX 02)6932-9880 **제작** 농민신문사 02)3703-6151 **기획·디자인** 와이에스기획 02)6403-0090



이 책자는 조합과 조합원님들을 위한 농협사료 자체 홍보물입니다. 수록된 기사, 사진 등은 농협사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게재된 내용은 허가없이 복제 및 전재를 할 수 없습니다. 계간 「농협사료」는 비매품입니다. 농협사료 홈페이지(www.nonghyupsaryo.com)에서 웹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축산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축산업이 새로운 생명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존경하는 축산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축산경제 임직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저는 축산경제 대표이사로서의 소명을 받아 희망찬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축산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절박한 시기에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나,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규제 강화, 관세 제로 및 비관세 무역 장벽 약화, 불안정한 곡물가격, 가축질병 수시 발생, 탄소 중립에 대한 요구 증대, 대체 단백질의 급속한 발전, 축산농가 고령화 등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축산이 직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나아가기 위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축산의 가치와 축산농가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국민 식량산업이자 농촌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우리 축산업이 이제는 환경오염 산업으로 인식되어 축산농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전 축종에 걸친 우리 축산업의 소중한 가치를 높이고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 증대와 자긍심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축산물 유통사업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유통 채널을 대폭 확대하여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공판장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우와 돼지가격을 지지하고, 부천에 축산종합물류센터를 건설하여 범농협이 함께 활용하는 수도권 축산물 유통기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축산물 통합구매를 조기에 정착시켜 축협과 축산경제가 농협 매장에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혁신과 교육·컨설팅 강화로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축종별 빅데이터를 구축,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표준 스마트 축사 보급을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은 물론, 축산 사업 전반에 디지털을 접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 컨설팅과 축산 기술 교육 활성화로 농가 단위 생산성 향상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축협 유형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축협은 한우산업의 든든한 중심체로 육성하고 낙농은 원유수급 안정자금 조성과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제도 개선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양돈은 유통센터 지원과 종돈 협력을 확대하고 양계는 EPC 지원과 계란 물류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양봉은 자연친화적이고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고, 말산업과 사슴산업도 소외됨 없이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과 ESG 경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신재생에너지화 확대로 분뇨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악취 민원 발생지는 집중 관리하는 한편, 가축질병 상시 대응체계 구축으로 방역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친환경 청정축산 구현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육기간 단축, 저메탄 사료개발, 양질의 조사료 보급 확대 등으로 축산분야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사회공헌과 윤리경영에도 힘쓰는 등 환경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더불어 발전하는 ESG 경영 실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미래 축산을 선도할 유망산업 발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미래 핵심사업 분야의 전문가로 집중 육성하여 축산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로 키우는 동시에, 축산경제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신사업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축산 가족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준비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편에 서 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축산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미래를 대비해 나간다면 오늘날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축산업이 새로운 생명산업으로 재도약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축산의 밝은 미래와 축산농가의 새로운 희망을 위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 축산농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업 영위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이상문**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의성축산농협 조합장)**

2022년 임인년(任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용맹한 기운을 받아 힘차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더불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축산업 발전과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축산인과 농협사료 임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국제곡물가격 및 환율, 해상운임 등 외부환경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들의 소비위축이 더하여 축산업과 산업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축산농가의 생산비중 사료비가 50%를 넘어서고, 조사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 중이며, 축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와 환경문제 등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 여론이 많은 실정입니다.

임인년 한 해는 축산농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업 영위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축산관련 정책 수립 시 적극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등 농정활동에 적극 활동을 하겠습니다.

현재 범축산업계의 추진 중인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사료비 절감을 위한 지원 대책,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 지원, 가축질병 예방지원, 후계 축산농가 육성 정책 등 많은 현황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전국축협운영협의회 일동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의 축산농가 및 전국 축산 관계자 여러분은 항상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특유의 협동조합 정신을 발휘하며 언제나 길을 찾아 왔습니다.

올 한 해도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축산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것이며, 축산업 전반의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등 규제중심의 축산업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축산업이 되기 위해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전국의 축협 조합장님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충실히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축산농가와 가족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경우 그 목표는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정상태**
**농협사료 대표이사**

**존경하는 전국의 축산인 및 농협사료 가족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 19와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 주신 축산인과 농협사료 가족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농협사료 사장으로 취임하여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대한민국 대표사료 농협사료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축산업과 농협사료의 발전만을 생각하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몇 가지 핵심과제와 실천 의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대표사료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대가축 분야에서 대군농가 차별화, 농가 컨설팅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신장시켜 대한민국 대표사료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가축 분야에서는 OEM 중심에서 직거래 중심의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농협사료 경영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시장점유율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료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명실상부한 1등 회사를 만들기 위해 영업제도의 개선과 영업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충남배합사료 공동사업 조기가동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료사업 분야에서는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지사무소의 판매시스템을 구축하여 협동조합 중심의 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신설되는 R&D센터와 미래사업 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농협사료의 연구기능 및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M&A, 신사업 등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사고 없는 회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동료가 불의의 사고를 입게 되면 개인은 물론 회사에도 크나큰 손실입니다. 특히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원년의 해인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안전관리전담팀 신설 및 직원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원료구매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의 원료가격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대내외 환경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원료 수입에 의존성이 큰 농협사료에는 불안 수준이 아닌 위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황분석능력 강화와 수입채널을 다각화하여 구매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협력사와 파트너십 확대로 원가절감 및 안정적 조달기반을 구축하여 타 구매단체 대비 가격 우위 선점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SG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료효율, 생산성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탄소저감 사료를 개발하는 등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며,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회사의 경영에 더욱 반영하여 그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축산인 및 농협사료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도 축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 강화와 ASF·AI 등의 가축 전염병 상시 발생, 고원료가격 및 고환율 등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축산인과 농협사료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 해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

# TIGER OR CAT
## 호랑이가 될 것인가, 고양이가 될 것인가?

2022년은 검은 호랑이해다. '호랑이가 될 것인가, 고양이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은 포스트 코로나가 시작되는 새로운 기점에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호랑이가 아닌 고양이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새로운 트렌드 변화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가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남는 핵심적인 역량이라는 뜻이다.

출처 | 트렌드코리아2022

| | |
|---|---|
| **Transition into a 'Nano society' :** 나노사회 | 사회는 점점 더 개인으로 분리되고 미세한 단위로 쪼개지고 있다. O2O 서비스와 Gig 노동의 증가로 노동의 파편화가 강해지고 사회 인프라와 유통이 세분화된다. |
| **Incoming Money Rush :** 머니러시 | 소비지출의 기대는 크게 높아진 반면 개인을 둘러싼 경제환경은 나빠졌기 때문에 직업을 여러 개 갖고 주식, 예금, 미술,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 |
| **Gotcha Power :** 득템력 | 예전에는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여 자신의 지위를 나타냈다면 이제는 돈이 있어도 쉽게 구할 수 없는 희소성 있는 아이템을 획득하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다. |
| **Escaping the Concrete Jungle 'Rustic Life' :** 러스틱라이프 | 도시에 살면서 시골 생활의 여유를 즐기려는 라이프스타일로 도시와 단절되는 삶이 아니라 도시에 살면서도 소박한 '촌스러움'을 더하는 삶을 지향한다. |
| **Reveler's in Health - 'Healthy Pleasure' :** 헬시플레저 |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펜데믹을 겪은 후 이젠 더 이상 고통스러운 건강관리를 감수하려고 하지 않고 과정과 결과가 모두 즐겁고 편안한 건강관리를 선호한다. |
| **Opening the X-Files on the 'X-teen' Generation :** 엑스틴 이즈 백 | 현재 대한민국 소비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대는 1965~1979년생인 X세대다. 그중에서도 경제적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10대 시절을 보낸 1970년대 생 40대가 10대 자녀와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한다. |
| **Routinize Yourself :** 바른생활 루틴이 | 바른 생활을 추구하며 루틴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노동시간 축소와 재택근무 확산으로 생활과 업무의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자기관리에 대한 욕구가 커졌고 스스로를 통제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다. |
| **Connecting together through Extended Presence :** 실재감 테크 | 비대면 시대에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상공간을 창조해 다양한 자극을 제공하는 실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핵심 기술을 누가 잘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
| **Actualizing Consumer Power - Like Commerce :** 라이크커머스 | '좋아요'에서 출발하는 소비자 주도 유통과정으로 이제 쇼핑몰로 들어가지 않고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를 통해 태그를 따라 들어가서 구매하는 쇼핑시대가 열렸다. |
| **Tell Me Your Narrative :** 내러티브 자본 | 2022년에는 나만의 내러티브를 만들어야 도약할 수 있다. 자신만의 서사, 즉 내러티브를 들려줄 수 있는 힘이 가장 중요한 자본력이 될 것이다 |

글 이가운 자료 참조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어국문학자료사전 외

# 범 내려온다

## 2022년 호랑이의 기운으로 열다

2022년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로 임인년의 임(壬)은 검은색, 인(寅)은 호랑이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호랑이가 많이 서식해 '호랑이의 나라'로 일컬어지기도 했는데 호랑이는 두려운 동물이기도 하지만 잡귀를 물리치는 영물이자 마을을 지키는 산신으로서의 역할도 한다고 믿어 조상들은 호랑이를 민족의 수호신으로 숭배해 왔다.









## 신화와 민속에 나타난 호랑이

우리나라 건국신화에 등장해 곰과 함께 사람이 되고자 했던 호랑이는 문헌 속에서 자주 등장한다. 『삼국유사』에는 후백제 견훤이 아기였을 때 호랑이가 젖을 먹였다 하여 호랑이를 '영웅의 보호자', '창업의 조력자'로 인식했고, 고려 태조의 5대조인 호경이 어느 날 굴속에서 잠을 자는데 굴 입구에서 호랑이가 크게 울부짖어 밖으로 나가보니 호랑이는 보이지 않고 굴이 무너졌다고 하여 호랑이를 '신의 사자' 또는 '신'으로 불렀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는 '산군'이라 칭하며 평소에는 느릿하게 움직이다가 목표물을 발견하면 매우 민첩한 몸놀림으로 돌진하는 호랑이가 뛰어난 지혜와 늠름한 기품까지 지녀 '산군' 또는 '산령', '산중왕'이라 하여 '숲의 왕'이라고 불렀다.

호랑이의 용맹성은 군대를 상징하기도 하여 무반을 호반이라 하였으며 호랑이가 병귀나 사귀를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믿어 호랑이 그림이나 '호(虎)'자 부적을 붙이면 이들을 물리친다는 속신도 있다. 또 동양권에서는 용과 더불어 군왕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 '용호상박'이라는 말도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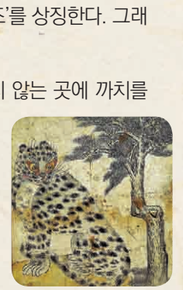
## 문화와 예술 속에 나타난 호랑이



호랑이는 전래동화나 그림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데 무서운 호랑이를 잡은 효자와 열녀이야기부터 은혜 갚은 호랑이에 이르기까지 호랑이를 주제로 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인간관계를 빗대어 보여준다.

민화에 나타난 호랑이 그림은 우리 고유의 민간신앙과 결부되어 나쁜 것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그려진 것은 〈까치호랑이〉다.

〈까치호랑이〉는 민화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소재로 해학적이고 풍자적이며 추상적인 표현과 다양한 채색으로 조선후기 민중의 심성을 잘 표현한 그림으로 평가된다. 그림 속에 나타난 호랑이는 주로 까치와 함께 있는데 까치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새로 '길조'를 상징한다. 그래서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말도 있다.





민속학에서는 인간의 길흉화복을 좌우하는 서낭신이 천지사방 가운데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까치를 시켜 호랑이에게 신탁을 맡겼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으로 볼 때 호랑이는 까치와 함께 길상의 의미는 물론 용맹함으로 나쁜 것을 쫓아내는 기운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그림을 해석하는 또 다른 관점으로는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풍자로 호랑이는 권력을 빙자하여 폭정을 자행하는 권력자로 나타내고, 까치는 힘없는 서민을 대표하여 까치가 호랑이에게 대드는 구도를 만들어 서민들의 신분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는 의견도 있다.



## 인간을 수호하고 나쁜 액운을 막아주는 호랑이



우리 조상들은 평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호랑이를 마냥 무서워하는 대신 든든한 수호신으로 탈바꿈시켰다. 인간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산신의 사자로 여겨졌던 호랑이는 용, 주작, 현무와 함께 '사신'으로서 서쪽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했고, 왕의 무덤을 지켜주는 석물 중에 하나인 '석호'로도 세워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을 뒷산에 산신각을 모셔놓고 산신도에 사람의 모습을 한 산신과 호랑이를 함께 그려놓았으며, 물과 불, 바람에 의한 재해를 막아준다는 부적 '삼재부'에는 머리가 셋 달린 매와 함께 호랑이가 많이 등장한다. 이는 호랑이를 잡귀를 몰아낼 수 있는 동물로 여겼기 때문이다.



## 현대에서 나타난 호랑이

현대에서는 호랑이를 힘과 용기의 상징으로 주로 쓰고 있다. 호랑이 특징 중에서 장점만을 부각시킨 것이다. 그 예로 1988년 서울올림픽의 마스코트인 호돌이는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며 호랑이가 지닌 본래의 용맹성은 축구협회나 대학교, 군부대 등에서 앰블럼으로 쓰여 '힘'을 나타내기도 한다.

호랑이가 우리 민족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지만 우리나라에 산악지형이 많고 그 산속에 사는 호랑이의 용맹스러움과 은둔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성향이 환상과 결합되어 호랑이를 매우 신성하게 여겼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 이색 명소 추천

### 백두산호랑이를 볼 수 있는 곳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



멸종위기에 처한 백두산 호랑이를 보존하기 위해 개장한 곳으로 곳곳마다 호랑이 조각과 호랑이 그림이 조성되어 있다. 축구장의 7배 넓이에 이르는 방사장을 만들어 호랑이를 방목하고 있는데 백두산 호랑이는 전 세계적으로 130~150마리 정도 밖에 없는 멸종위기에 처한 귀한 동물로서 처음에 들어온 한 쌍 중에서 한 마리는 병으로 죽고 한 마리만 남았다. 이후 서울동물원에서 두 마리가 더 들어와 현재 세 마리가 살고 있다. 그중에서 13살 암컷 '한청'이와 7살 수컷 '우리'는 관람객들이 직접 만나볼 수 있다.







# 호랑이와 관련된 속담

**강 건너간 호랑이다.**
일이 잘 해결되었다.

**개미 나는 곳에 범 난다.**
작은 일에서 큰일이 비롯된다.

**그림의 호랑이다.**
보기에는 무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서울 것이 없다.

**까마귀가 운다고 범이 죽을까?**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다.

**나가던 범이 돌아선다.**
나가던 위험이 다시 돌아온다.

**날개 돋친 범이다.**
범이 날개를 단 것처럼 막강해졌다.

**돈이라면 산 호랑이의 눈썹이라도 빼온다.**
돈벌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한다.

**떨어져도 범의 아가리에 떨어진다.**
운이 나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

**범 가는 데 바람 간다.**
서로 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한다.

**범과 이리의 마음**
매우 포악한 사람을 이르는 말

**범 나비 잡아먹듯 한다.**
음식 같은 것을 적게 먹어 양에 차지 않는다.

**범도 개에게 물릴 때가 있다.**
강한 자도 방심하면 약한 자에게 당할 수 있다.

**범도 고슴도치는 못 잡아먹는다.**
약한 자도 무장을 하면 강한 자가 덤비지 못한다.

**범도 뛰어야 토끼를 잡는다.**
사소한 일이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범도 있고, 개도 있다.**
잘난 자도 있고 못난 자도 있다.

**범도 있고, 용도 있다.**
잘난 이들이 한곳에 모여 있다.

**범 새끼가 열이면 시라소니도 있다.**
자식이 여럿이면 그중에서 못난 놈도 있기 마련이다.

**범의 꼬리는 놓을 수도 없고 잡고 있을 수도 없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

**범의 입보다 사람의 입이 무섭다.**
범의 입은 한 사람을 상하게 하지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수백명이라도 죽일 수 있으므로 더욱 무섭다.

**범이 범 새끼를 낳고 용이 용 새끼를 낳는다.**
훌륭한 부모가 훌륭한 자식을 낳는다.

**사흘 굶은 범이 원님을 알아보랴!**
오래 굶은 사람은 예의고 염치고 없다.

**산 호랑이 눈썹을 찾는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세 사람만 우겨대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도 진실로 둔갑한다.

**썩은 새끼로 범 잡기**
매우 위험한 행동을 이르는 말

**여자는 젊어서는 여우가 되고 늙어서는 호랑이가 된다.**
여자는 젊을 때는 남편의 비유를 잘 맞춰주지만 늙으면 남편을 다스리려 한다.

**오뉴월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먹을 것이 없는 시기에 오는 손님은 매우 난감하다.

**용의 수염을 만지고 범의 꼬리를 밟는다.**
매우 위험하고 위태로운 순간

**이빨 빠지고 발톱 없는 호랑이**
당당하던 권세를 잃어버린 사람



글 이지향 사진 박정우

# 선진축산의 구심점이자 지역 축산인들의 기둥
# 충주축협

**40년간 축산업에 종사해온 베테랑 축산인 오후택 조합장이 이끄는 충주축협은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과 투명한 내실경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임직원의 역량을 끌어올려 경제·지원사업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조사료를 직수입해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키고 조합원 건강까지 챙겨 삶의 질을 높여주는 선진축협으로서의 면모를 선보이고 있다.**




## 낮은 자세로 조합원에게 다가가자

1958년 2월에 설립된 충주축협은 2019년 3월 오후택 조합장이 조합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각종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다. 이렇듯 충주축협의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오후택 조합장이 취임 후 제일 먼저 임직원들에게 요구한 것은 '조합의 문턱을 낮추라'는 것이었다.

"조합장이 되기 전, 축협에 올 때마다 왠지 분위기가 위압적이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조합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임직원들에게 '낮은 자세로 고객들에게 다가가자'고 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니까요."

직원들은 더욱 부드럽고 친절하게 응대했고 조합원들은 조합을 보다 쉽게 드나들게 되었다. 그러자 '2020년 상호예수금 3000억 달성'과 '2021년 클린뱅크 동등급 수상'의 성과가 뒤따랐고 하나로마트는 고객이 늘면서 매출이 상향되었다. 또 농협중앙회 마트 판매본부가 시행한 '2020년 설특판 추진실적 평가'에서 하나로마트 안림점이 중형점 2그룹 123개 소 가운데 1위를, 교현동에 있는 본점이 중형점 3그룹 120개 소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매장 직원들에게 작은 것부터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살피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고감모손실이 크게 줄었고 매출은 증대됐죠."

새벽 5시면 일어나 개인이 운영하는 우사를 돌아본 뒤 축협으로 일찍 출근하고, 주말에는 관내 농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합원의 이익증대에 힘쓰고 있는 오후택 조합장은 경영개선을 위해 단 5분도 시간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다.

## 면역력을 높인 '충주 오메가한우'

충주축협이 육성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충주 오메가한우'는 충주축협 TMR공장에서 개발한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은 비육마무리(오메가)사료를 먹여 키운 기능성 한우로서 고급화되고 있는 소비시장의 요구에 맞춘 명품한우로 자리매김 중이다.

"2015년 조합원들의 숙원사업이던 TMR공장을 준공해 2016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TMR사료를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오메가한우' 생산을 시작한 이래 현재 208개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 한우브랜드가 있을 정도의 축산 노하우를 가진 오후택 조합장은 현장의 경험을 살려 브랜드 전용사료인 TMR사료의 배합비를 보완해 기호성을 증진시키고, 증체와 육질 등급 향상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 TMR공장에서는 번식우, 육성우 전기·마무리단계, 사슴·염소 등 전용 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미생물 사료공장을







완공해 고체와 액체 미생물을 직접 48시간 이상 배양 후 TMR사료에 투입함으로써 제품의 차별화를 꾀했다.

"'충주 오메가한우' 명품화 육성을 위해 마무리단계 TMR사료의 품질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행정적인 뒷받침과 축협과 참여 농가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오후택 조합장은 농가에서는 사육에만 전념하도록 축협에서 차별화된 컨설팅과 사양관리를 지원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생산·판매기반을 확충하여 '충주 오메가한우'가 최고의 명품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주축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충주 오메가한우'를 유명 백화점과 수도권 하나로마트 등에 입점시켜 수도권 소비시장을 확충, '충주 오메가한우'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 조합원 실익증대와 복지확대로 '상생' 실현

다른 조합에 비해 복합영농의 비율이 높은 충주축협에서는 전국 최초로 염소경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봉농가 등 사각지대 축종에도 현장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가축시장의 대외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

"2017년 가축시장 현대화사업의 하나로 전국에서 최초로 염소경매장을 개장했는데 염소경매장은 불투명한 염소 유통가격의 표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되었고 2019년에는 전국축산농협 경제사업평가대회에서 '가축유통활성화부문 최우수상'도 수상했습니다. 염소산업도 경매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유통가격이 투명해져서 농가에서 가격 변동에 맞춰 대처할 수 있게 되었죠."

오후택 조합장은 이처럼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컨설팅과 적절한 지























원사업으로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관내 출하대상 등록우에 대해 친자확인을 실시하고 신생 송아지에 귀표를 장착할 때 불제각연고를 처치하도록 하여 경매시장 출하 시 더 좋은 가격으로 거래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컨설팅하여 조금이라도 농가 이익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 조합원들에게 꼭 필요한 조합

충주축협에서 농가의 실익증대를 위해 주력하는 또 다른 사업은 조사료 직수입으로 연간 6만 톤 물량의 조사료를 직수입해 전국 40여 농·축협과 농가 및 TMR사료 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충주축협이 직접 조사료 생산 장비를 구입해 사료작물 파종부터 수확까지 대행해 주고 있다.

"수급이 불안정할 때도 양질의 조사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조사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취급하는 품목은 알팔파, 티모시, 연맥, 유기농 건초 등으로 전국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주축협은 조합원이 건강해야 축산업도 발전한다는 생각으로 조합원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농업인NH안전보험 무상가입을 지원하는 등 조합원에게 꼭 필요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오후택 조합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조합원을 위한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건립을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로 삼고 있다.

"제대로 된 자원화시설을 가동해 깨끗하고 위생적인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순환농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일환으로 충주시와 함께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했었는데 각종 민원에 부딪혀 현재는 답보상태입니다. 하지만 미래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에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합리적인 민원처리로 꼭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농가의 골칫덩어리인 가축분뇨를 고체 연료화하고 이를 제철소에서 친환경 연료로 확대 이용,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오후택 조합장 역시 미래의 축산환경에 역점을 두고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건립을 목표로 충주축협의 또 다른 도약을 꿈꾸고 있다.

**MINI** INTERVIEW



**충주축협** 오후택 조합장

**"조합원의 복지와 지원사업 등을 위해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조합발전에 노력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났을 때 조합원들과 임직원들에게 '참 열심히 일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보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껏 열심히 달려온 만큼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발로 뛰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꾀하면서 조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글 이지향 사진 박정우



주변의 산을 깎아 정리하고 해발 높은 곳에 축사를 지어 축사와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하는 늘푸른한우농장은 따뜻한 햇살에 몸을 맡기며 유유자적 움직이는 소들과 그 소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이창근 사장의 평온한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축산이기에 부지 선정부터 시설물 설치까지 치밀한 계획으로 10년 동안 뚝심 있게 달려온 그는 사람과 소가 모두 편안한 자연친화적인 축산을 실천하고 있다.

## 자연친화적인 스마트팜의 리더
# 늘푸른한우농장



### 15년 프로젝트 완성을 목표로 'STEP BY STEP'

20대 초반부터 군대생활을 하고 장교(육군대위)로 예편한 늘푸른한우농장 이창근 사장은 개인사업을 하던 중 아버지의 진심어린 권유로 축산의 길로 들어섰다.

"부친께서는 1970년대 초창기 때부터 충주지역에서 한우농장을 시작했던 축산 선배님이십니다. 평생을 한우와 함께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악화로 쓰러지셔서 제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모시고 다녔는데 그때 축산을 권유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금전적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였지만 부친의 계속된 권유에 축산을 이어야겠다고 결심했죠."

이창근 사장은 특유의 군인정신으로 한번 결심한 일은 즉시 실행하는 발빠른 실행력과 추진력을 앞세워 15년 후를 내다본 친환경 농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2012년에 본격적으로 한우 농장을 시작한 이창근 사장은 한우사육에 대한 지식과 부족한 경험을 채우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더 철저한 계획으로 늘푸른한우농장의 청사진을 그렸다.

"서울에 가족들을 두고 혼자 내려온 만큼 농장을 꼭 성공시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농장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시도 때도 없이 농장을 둘러봤죠. 그러면서 소들에게 맞는 최적의 환경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 철저한 준비와 미래를 대비한 축사 설계

이창근 사장은 10년 안에 계획한 축사를 완성하고 15년 안에 소를 300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로 가장 먼저 친환경농장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리고 환기를 고려한 해발 높은 고지대에 축사를 신축해 최대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게 했으며 축사 진입로는 아스콘 포장으로 대형 화물차가 농장 진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능성을 높이고 정리도 깔끔하게 했다.

축사 주변은 석축과 축조 블럭을 쌓아 조경을 살리고 축사 주변에는 둘레길을 조성해 단순한 농장을 넘어 '팜랜드'로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성을 다했다. 뿐만 아니라 축사의 천장과 벽에 자동개폐시설을 설치하여 환기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자동윈치커튼 설치로 소들이 낮에는 자연의 바람을 맞고 밤에는 따뜻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으며, 축사 밖에는 전기울타리를 설치해 외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고 자동 분무소독시설을 갖추어 위생 상태를 더욱 철저히 했다. 또한 미네랄 블럭 거치대를 설치해 소들이 필요한 영양소를 보다 편리하게 잘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사 시설을 설계할 때 축사의 환기를 고려하여 축사 벽에 대형 휀을 설치해 축사의 유해가스배출 및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으며, 반원형 워터컵을 설치해 소들이 편리하게 냉·온음수를 섭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송아지 먹이통을 눈높이에 맞게 자체 제작해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밤을 낮 삼아 농장에서 소들을 돌보며 하루 종일 소만 생각하는 이창근 사장은 한우 25두로 시작한 이래 외부에서 들여오는 송아지 한 마리 없이 개량을 거듭하여 지금은 번식우 129두, 수소 23두, 거세우 46두로 약 200두 정도의 농장으로 키웠다.

"계속해서 시설투자를 하면서 일괄사육으로 30~50두 정도 더 늘릴 계획이지만 밀사를 시키지 않기 위해 한 칸에 4~5두를 넘지 않게 할 예정입니다. 사람이나 소나 몸이 우선 편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모든 포커스를 소에 맞추고 있는 이창근 사장은 등급출현율도















상위 10% 이내에 들 정도로 좋은 성적을 거두며 꾸준히 개량에 힘쓰면서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대비하고 있다.

## 두 배, 세 배 발로 뛰어 얻은 '나만의 비법'

농장을 운영하다 보니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인맥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창근 사장은 전국의 농장을 찾아다니며 조언을 듣고 협회를 방문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다.

"다른 농장 사장님들과 친분을 쌓아온 덕에 요즘처럼 조사료 수급이 어려울 때 우리 농장뿐 아니라 주변 농가에도 조사료 구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것이 앞으로 축산농가의 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올곧고 성실하게 소를 키우며 축사와 환경까지 늘 염두에 둔 이창근 사장은 2021년 농업축산경제 지주에서 주관한 '청정축산 환경대상 최우수상(충북지역)'도 수상했다.

"목표를 세우고 그저 근면·성실하게 농장을 돌봤을 뿐인데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3~40년 동안 한 일을 10년 안에 따라가려니 몇 배는 더 열심히 하고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료 급여도 이창근 사장이 하면 다르다. 비육우는 하루에 세 번 급여한 뒤 미처 먹지 못한 사료는 밤 11시부터 1시 사이에 먹을 수 있도록 자동 전등 타이머를 설치해 야간에 소들을 깨워주고, 번식우는 하루에 한 번만 급여한다. 대신 조사료는 아침, 저녁으로 먹인다. 번식우가 밤에 새끼를 낳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먹이를 먹으면 체온이 올라간다는 것에 착안해 급여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 나와 내 가족에게 자랑스런 축산인이 되기 위해

늘 최적의 한우 사양에 대해 고민하는 이창근 사장은 동물복지를 위해 축사에 항상 음악을 틀어 놓는다. 덕분에 소들은 온순해지고 소들을 보고 있는 그의 입에서도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온다.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저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고마운 존재이기에 키우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소들을 편안하게 보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설투자를 계속 하고 있죠. 최신형 소형 휠로더 1대, 트랙터 1대를 구입해 농장에 노동력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전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사육환경을 개선해야 소들도 편하고 성적도 잘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축사 환경이 좋아야 일하는 저도 행복하고요."

소규모 부업농가가 점점 사라지고 대규모 농가들이 증가하는 추세라 새롭게 진입하는 축산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에서 앞으로는 '얼마나 우량한 번식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농장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는 이창근 사장은 '노력한 결과는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소신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

"농장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10년 동안 노력하는 저를 보고 처음엔 반대했던 가족들도 이젠 '수고했다'며 '가장으로서 자랑스럽다'는 말을 해줘서 매우 뿌듯합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며 앞으로 더 청정한 한우농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투자와 개량도 중요하지만 자신처럼 2세 후계농으로 시작하는 동료들에게 '빗자루 먼저 들라'는 성실한 노동의 실천을 당부하는 이창근 사장은 더욱 발전된 축산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굳은 의지를 내보였다.













### 농협사료에 **한마디!**



**늘푸른한우농장** 이창근 사장

**"처음 농장을 시작할 때부터 농협사료만 사용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변함없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꽤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있는 셈이죠. 그만큼 농협사료에 대한 믿음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고 농가의 이익증대에 귀 기울이고 좋은 사료를 만들어주시는 농협사료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축산인들과 함께 축산 발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글 이지향 사진 박정우

## 전국 최고의 한우를 키워낸 축산 명인

# 정훈농장








**1997년 IMF 한파로 농장을 폐업한 이후 2007년에 다시 한우 농장을 시작한 정훈농장 박성순 사장은 일찌감치 암소개량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에 매진해온 결과 '제24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첫 출품 만에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실천해온 그가 전국 최고의 한우를 탄생시킨 순간이었다.**

###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도전 또 도전

1997년 IMF로 운영하던 한우농장을 폐업해야만 했던 큰일을 겪은 박성순 사장은 165,289㎡(약 5만 평)의 벼농사를 지으며 대농으로 자리 잡았지만 한우 사육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2007년에 다시 한우 30마리로 새롭게 축산에 뛰어들었다.

"다시 축산을 시작하면서 '더 이상의 실패는 없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아들과 함께 400마리 정도의 소를 돌보고 있는데 번식우 약 150~160마리에 송아지는 연간 약 130마리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세 번 이상 농장을 꼼꼼히 돌아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박성순 사장은 설사하는 소는 없는지, 발정난 소는 없는지 등을 체크하면서 각 소에 맞는 정액과 발정시기를 조절한다.

"수정 과정에서 정액은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지만 저는 암소개량이야말로 더 좋은 혈통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소개량에 매진했죠."

'밑소의 자질이 얼마나 좋은가', '좋은 형질을 얼마나 물려받았는가'가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0%는 농장주의 사양관리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박성순 사장은 같은 사료를 먹고 자란 소들이 각각 체중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 이유가 유전력에 있다고 판단하고 암소의 체중에 초점을 맞춰 계획교배를 진행했다.

"육질의 등급이 좋아도 체중이 떨어지면 농가의 수익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개량단계에서는 체중을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후 원하는 수준까지 체형이 완성되면 육질이 우수한 정액을 수정하여 등심단면적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면서 사양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암소개량을 통해 좋은 유전력을 지닌 송아지 생산

박성순 사장은 철저한 계획교배로 암소의 체형을 완성한 뒤 육질개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어미소가 출산하는 송아지의 성적을 근거로 하여 암소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정액을 통한 계획교배를 하고 있는데 더 나은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육량과 육질 위주의 개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순 사장은 송아지 때부터 육성기까지는 알팔파와 연맥 등 양질의 조사료를, 출생 후 8개월령까지는 카프밀 어린송아지 사료를, 13개월까지는 육성우 사료를 급여하고, 전기에는 TMF 사료와 배합사료를 적절히 급여한 이후 출하 전까지는 배합사료 위주로 급여하며 영양 밸런스를 맞춰준다.

“개량된 암소들은 예상대로 좋은 유전력을 가진 송아지들을 생산해냈습니다. 여기에 체중도 늘리고 육질도 올릴 수 있는 맞춤 사료급여 시스템을 운영하고 양질의 조사료를 주면서 정성껏 돌보니 농장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소도 좋은 등급을 받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 제24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대통령상 수상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개량과 사양관리 등의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장주의 성실성과 끈기 그리고 인내를 바탕으로 한 세심한 관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박성순 사장은 ‘제24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 소를 첫 출품하자마자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처음 수상 소식을 접했 때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상하러 가면서도 차를 몇 번이나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믿기지 않았죠. 주변에서 ‘등급성적이 좋으니 시험 삼아 출전해보라’는 권유가 계속 있어서 별다른 욕심내지 않고 출품했는데 결과가 대통령상으로 이어져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제24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 참가한 240두 출품우 중에서 박성순 사장이 출품한 한우는 출하체중 897kg, 도체중 542kg, 등급 1++A, 등심단면적 136㎠, 등지방두께 11㎜, 육량지수 63.38로 경락가는 역대 최고가인 7천46만원을 기록했다.

“대통령상 수상 이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별게 없어요. 그저 부지런히 소들을 살피고, 깐깐하게 사료를 확인하고, 소들이 먹는 모습을 관찰하며,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것밖에는요. 저의 소신대로 성실하게 암소개량에 중점을 두어 5계대에 걸쳐 개량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같이의 가치’를 실천하는 축산 명인

박성순 사장은 아들과 함께 농장을 운영하면서 아들이 후계농으로서 열심히 배우고 적극적으로 농장운영에 참여해주어 무척 든든하다고 한다.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온 아들이 저의 사양관리 노하우를 이어받으며 치료 등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매우 훌륭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아내 또한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 가족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동업자란 생각이 듭니다.”

약 20ha 규모의 논에서 옥수수 등을 재배하며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하고 760㎡(약 230평) 규모의 퇴비사를 갖추고 농장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충분히 부숙시켜 퇴비를 논에 살포하는 자연순환농업을 실현하는 박성순 사장은 깨끗한 축사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래에 대규모 축산농가가 증가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신규 농장에 대한 법적인 규제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농장에서 민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저도 바닥과 퇴비 관리, 악취저감 관리 등 깨끗한 축사관리를 위해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성순 사장은 ‘같이의 가치’도 몸소 실천하고 있는데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받은 포상금 500만 원에 자신의 사비를 더해 총 1,000만 원을 (재)무안군승달장학회에 기탁하는 선행을 보였다.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얻은 만큼 군민들과 기쁨을 함께 하고 싶었다는 박성순 사장은 후계농인 아들이 안심하고 축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며 정훈농장과 대한민국 축산의 미래를 더욱 훈훈하게 했다.

### 농협사료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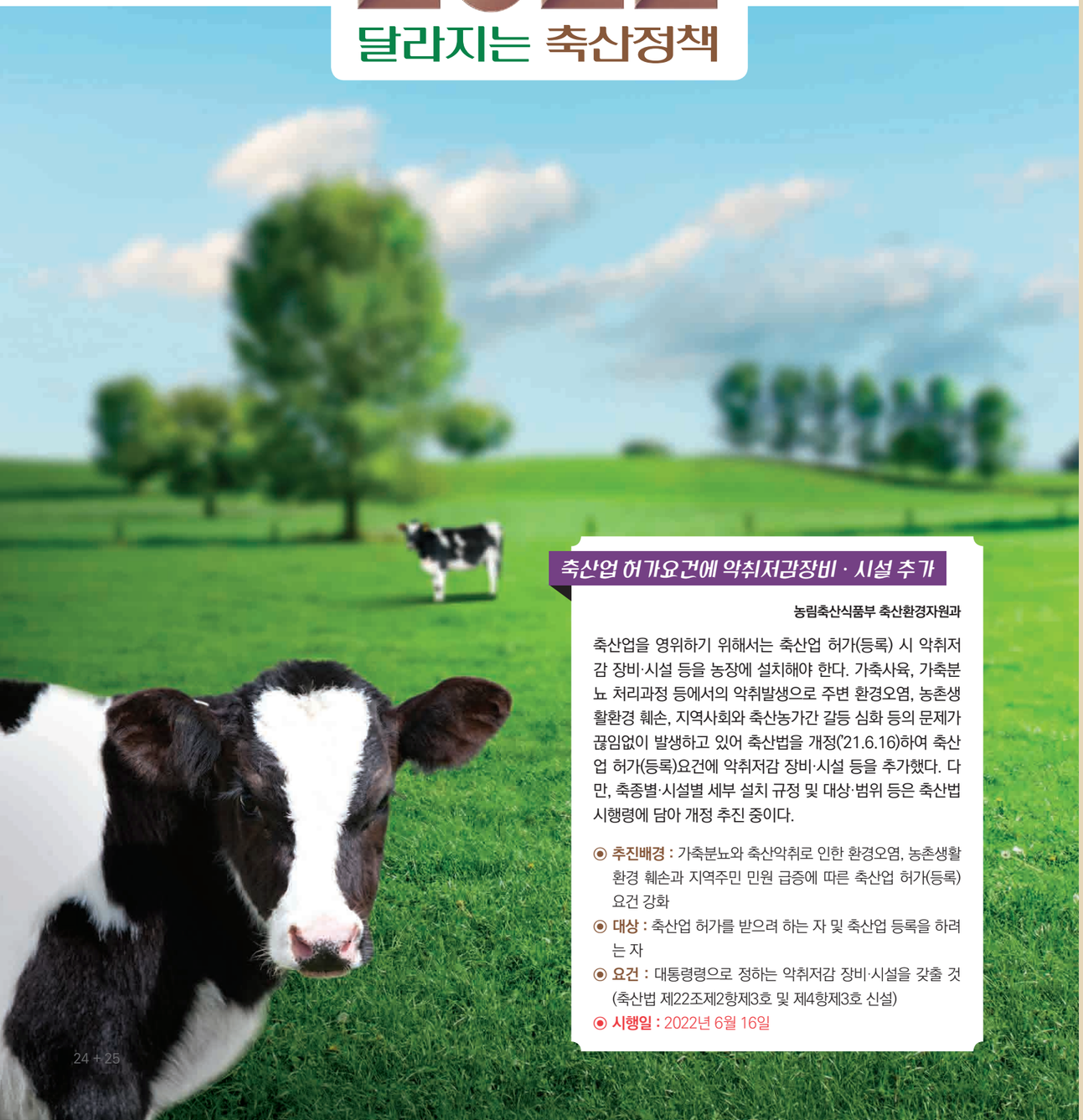


**정훈농장** 박성순 사장

**“현재 ‘안심한우 시리즈’를 급여하고 있는데 농협사료 팀장님이 우리 정훈농장의 직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주 방문하고 챙겨 주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료에 대한 정보와 사양관리에 필요한 정보도 많이 알려주고요. 이번 전국한우평가대회에도 농협사료 팀장님의 끈질긴 설득으로 출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가 이익을 위해서 좋은 사료를 만들어주는 농협사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 2022 달라지는 축산정책



##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 · 시설 추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등록) 시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농장에 설치해야 한다. 가축사육, 가축분뇨 처리과정 등에서의 악취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 농촌생활환경 훼손, 지역사회와 축산농가간 갈등 심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축산법을 개정(21.6.16)하여 축산업 허가(등록)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추가했다. 다만, 축종별·시설별 세부 설치 규정 및 대상·범위 등은 축산법 시행령에 담아 개정 추진 중이다.

- **추진배경 :** 가축분뇨와 축산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주민 민원 급증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강화
- **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 하는 자 및 축산업 등록을 하려는 자
- **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갖출 것 (축산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제3호 신설)
- **시행일 :** 2022년 6월 16일

## 소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고투입·장기사육 방식으로 탄소배출량 증가, 생산비 등 농가 경영부담 증가, 소비자 구매부담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소 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소 사육기간(현 30개월 수준)을 단축하는 등 사육방식 개선을 위해 영양수준 및 비육시기 조절 등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증실험을 통해 최적의 사육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며 향후 축산농가에 보급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 및 생산비 경감 등 국내 한우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추진배경 :** 고급육 생산을 위한 고투입, 장기사육 방식으로 탄소배출량 증가, 생산비 등 농가 경영부담 증가, 소비자 구매부담 증가 등 문제 발생
- **목적 :** 사육기간 단축(30→24·26개월 등) 등 소 사육방식 개선을 통한 고투입·장기사육에 따른 문제 개선
- **주요내용 :** ①소 단기사육 실증실험 ②축산선진국 소사육방식 조사 ③탄소배출량 측정조사 ④송아지 유전능력(육질·육량) 평가시스템 개발 ⑤단기 출하육 시장현황 분석 및 선호도 조사 등
- **시행일 :** '22~'24년 시범사업 후 축산농가 보급 예정

## 가축질병 대응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국내 미발생 동물감염병에 대한 초동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R&D)' 사업을 '22년 신규 추진하며 기 개발된 연구성과의 현장 보급 및 적용, 국내외 가축질병 바이러스의 특성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기반 구축 및 국제 공동연구 거점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 **추진배경 :** 반복적인 가축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축산업 위기 극복 및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대응을 통한 가축 방역정책의 효율성 제고
- **지원 분야 :** 개발성과 현장보급기술, 국내외 신변종 바이러스 협력체계 구축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잠정, 세부계획 수립 중)



##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허가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가축분뇨 배출시설(허가규모 이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간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설치 허가 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농가에 대해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의 이행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저감 등 농촌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추진배경 :** 가축분뇨 처리문제가 농촌 생활환경에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축산악취 저감 등에 대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주요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허가규모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시행일 :** 2022년 4월 14일



##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으나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 **추진배경 :**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 **주요내용 :**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함
  - 현행 : 민간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 부여
  - 개정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 발급. 다만, 자격증은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발급 예정
- **시행일 :** 2021년 8월 28일(첫 시험 시행일 : 2022.2.27.)

글 이가운 참고자료 「신한우별곡」/농협경제지주 지음/윤성사

# 한우 등급은 어떻게 결정될까?

**‘한우 투뿔 등심’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입 안에 가득 군침을 고이게 한다. 한우 고기에는 소고기 등급제에 의한 다섯 가지 등급(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이 존재하는데 이는 소비자가 고기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품질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 품종 전반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한우 등급




한우 등급은 어떻게 결정될까? 흔히 ‘마블링이 좋으면 등급이 높은 고기’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한우 육질 등급은 다섯 가지 항목(마블링(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각 항목 중 가장 낮은 등급이 고기의 등급이 된다는 사실이다.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각 항목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해 산출하고 성숙도 No. 8·9(약 60개월령 이상, 나이가 많아 육질이 좋지 않은 소)인 경우 1개 등급을 하락시켜 최종 등급이 확정된다.

예를 들어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이 모두 1++ 등급이라도 조직감에서 1등급 수준을 보이면 그 고기는 1등급이 된다. 여기서 만약 성숙도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한 등급이 내려가 최종적으로 2등급 고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투뿔 한우가 되기 쉽지 않다.

## 한우 라벨 읽는 방법

한우 고기의 등급은 소비자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용 라벨에 표시된다. 한우 라벨에는 등급을 포함한 이력 정보가 많이 들어 있다. 이에 한우 라벨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❶ 원산지와 품종

국내산 ‘한우’ 표시를 꼭 확인한다. ‘한우’라고만 적혀 있어도 국내산이니 안심해도 된다.

### ❷ 부위

구입할 한우 고기의 부위를 잘 확인한다.

### ❸ 보관방법

냉장 제품은 -2~10℃(다짐육은 -2~5℃)에 보관하고 구입 후 가급적 빨리 먹길 권한다.

### ❹ 등급

소고기 등급제에 의한 등급(1++, 1+, 1, 2, 3등급)을 확인한다. 1++ 옆 괄호 안의 숫자는 근내지방도(마블링)를 나타낸다.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풍미를 중요시한다면 (9)를, 너무 기름진 것이 부담드럽다면 (7)이 좋다.

### ❺ 포장 일자 및 유통기한

구입한 냉장 한우 고기는 빨리 먹는 것이 좋다. 냉동할 경우엔 좀 더 길게 보관이 가능하나 냉장고기를 냉동하게 되면 냉동제품을 구입한 것보다도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

### ❻ 중량과 100g당 가격

소비자의 가격 비교 편의성과 알 권리를 위해 식육에는 100g당 가격 표지가 의무화되어 있다.

### ❼ 축산물 이력번호

내가 먹는 한우 고기는 어디에서 왔을까? 축산물 이력제는 구입하는 한우의 생산, 이동, 가공에 대한 기록관리를 통해 방역의 효율성과 축산물 유통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라벨의 12자리 번호를 축산물 이력제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aunit.mtrace.go.kr)에서 조회해 보자






글 이가운

테마로 살펴본 겨울 여행

# Winter Story

겨울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이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기도 하다.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 겨울 풍경이 달라진다. 광활한 대지를 새하얗게 뒤덮은 설경은 쓸쓸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안아주고 장독 위에 소복하게 내려앉은 눈은 정감 있게 말을 걸어온다. 그래서 겨울 풍경은 이야깃거리가 많다.

## 겨울 풍경에 흠뻑 빠지다



### 대관령 선자령

해발 1,157m의 높이의 산이자 고개로 해발 840m의 대관령휴게소가 6km 밖에 위치해 있고 등산로가 평탄해 주변 풍광을 감상하며 오르기에 좋다. 선자령은 사계절 중에서 겨울 풍경이 특히 압권인데 백두대간을 이루는 영동과 영서의 분수 지점으로서 동쪽은 급경사, 서쪽은 완경사를 이루어 광활한 설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 용대리 황태덕장

한국 최대의 황태덕장으로 전국에서 70%의 황태를 생산하며 1961년 함경북도에서 월남한 나종호가 처음으로 덕장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태는 거는 즉시 얼어야만 물과 함께 육질의 양분과 맛이 빠져나가지 않는데 용대리는 밤 평균기온이 두 달 이상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며 계곡에서 늘 바람이 불어와 황태를 말리기에 천혜의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다.



## 새해의 소망을 담다

### 동해 추암 촛대바위

애국가 배경화면으로 자주 등장할 만큼 기암괴석이 촛대바위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은 예로부터 영동지방의 절경으로 손꼽혀 왔다. 특히 신비한 모습으로 바다를 뚫고 나오는 듯한 추암바위와 동해에서 솟아오르는 태양이 촛대바위에 걸리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이라 할 만하다.





### 울산 간절곶

정동진, 호미곶과 함께 동해안 최고의 일출 명소로 꼽히며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으로 정동진보다는 5분 먼저, 호미곶보다는 1분 먼저 뜬다고 알려져 있다. 어부들이 먼 바다에서 이곳을 바라보면 긴 간짓대처럼 보인다 해서 이름 붙여졌으며 언덕 위에 서 있는 하얀 등대와 커다란 빨간 우체통이 명물로 꼽힌다.

### 포항 호미곶

우리나라 지도를 펼쳤을 때 영일만 옆으로 불쑥 튀어나온 끝 부분으로 육당 최남선이 백두산 천지, 변산 낙조 등과 함께 조선10경으로 꼽았을 정도로 호미곶 일출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장기갑으로 불리다가 장기곶으로 바뀌었고 2001년 12월 '호랑이 꼬리'라는 뜻의 호미곶으로 다시 바뀌었다.





## 이국함에서 색다름을 찾다

### 경주 불국사

벚꽃이 피는 봄이나 알록달록 단풍 옷을 입은 가을에 주로 찾는 불국사의 시그니처 풍경은  새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연화교, 칠보교의 모습이다. 그래서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엔 사람들이 비교적 없는 편이다. 하지만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아름다운 사찰을 하얗게 뒤덮은 설경은 다른 계절에서 느끼지 못한 색다른 분위기를 보여준다.





### 강릉 선교장

국가민속문화재 제5호로 지정된 곳으로 20세기 한국 전통가옥 분야에서 한국 최고의 전통가옥으로 선정되었다. 그만큼 한국의 멋과 매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한옥의 처마는 그냥 보아도 고풍스러운데 하얀 눈까지 쌓여 있어 그 멋스러움이 배가 된다.

### 남원 오작교

음력 7월 7일에 동쪽과 서쪽에서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날 때 까마귀와 까치들이 은하수에 모여 서로 몸을 이어 만든 전설 속의 다리로 남원 광한루에 세워져 있다. 현존하는 연지교 중에서 규모나 형식이 가장 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무지개다리로 알려져 있다.



## 동화 속 풍경을 만나다



### 포천 허브아일랜드 불빛동화축제

허브아일랜드의 불빛동화축제는 365일 내내 곳곳에 화려한 불빛이 반짝이고 있지만 특히 겨울에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드넓은 라벤더 밭을 오색찬란한 빛이 감싸고 있는 산타마을 풍경 때문이다. 게다가 크리스마스 포토존, 크리스마스 트리와 촛대만들기 등의 겨울 이벤트도 풍성하다.

###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오색별빛정원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열리는 아침고요수목원 오색별빛정원전은 딱 겨울에만 열린다. 330,579㎡(약10만여 평)의 야외정원 곳곳에 온갖 색의 친환경 LED 조명과 빛을 이용해 자연과 빛의 조화를 추구하며 인공적인 조명 속에서도 한국 자연의 미를 한껏 느낄 수 있다.





### 코엑스 별마당도서관

코엑스몰 중심에 총 2,800㎡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m 높이의 서가에 은은한 불빛이 공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는 편안한 서재 콘셉트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관 한가운데에 대형 실버트리가 세워져 있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어 겨울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 있다.

# 농협사료 대표상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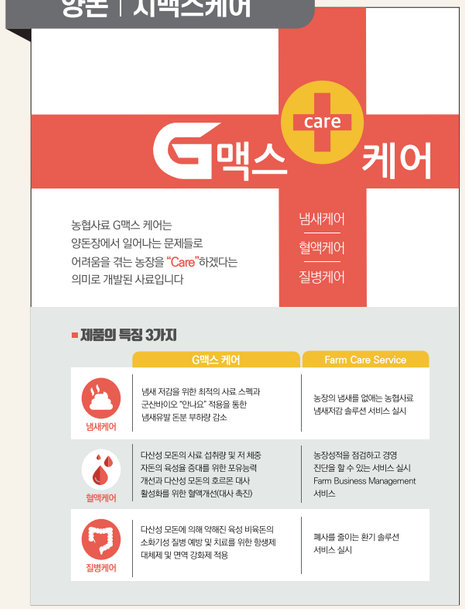
## 한우 | 농협안심한우




## 낙농 | 락토플러스




## 양돈 | 지맥스케어




## 양계 | 히트산란




## 친환경 미래축산 실현 전방위 지원 '삼총사'

| 그린마스킹 | 기대효과 |
|---|---|
|  |  |



| 블루마스킹 | 기대효과 |
|---|---|
|  |  |



| 안나요 | 기대효과 |
|---|---|
|  |  |

# 전문가 Q&A

**출처 |** 농협축산정보센터(http://livestock.nonghyup.com)

**Q** 송아지를 포유하고 있는 한우 어미소에게 곤포 사일리지용 라이그라스 급여 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항간에 곤포용 라이그라스는 수분이 많아서 송아지 설사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먹이면 안 된다 해서 궁금합니다.

**A** 우선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크게 2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수분 편차 : 수분 편차에 따른 원물의 영양성분 편차

2) 유해 성분 : 취급과정 중 공기유입 또는 균일도 문제에 의한 곰팡이 발생

국내산 자급조사료의 경우 작업 지역 및 장비 그리고 취급 방식에 따라 성분 편차가 큰 편입니다. 우선 성분함량에 대한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최소 1년 2~3회 실시 권장).

가능한 구입처 또는 공급처에 구매한 라이그라스 사일리지의 영양성분 분석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농장에 도착하게 되면 추가 분석을 실시하시어 표준(일반) 라이그라스 사일리지와의 비교를 꼭 실시하여 주십시오. 영양분의 공급수준 편차는 포유기간 중 어미소의 유량 및 유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어미소의 젖을 먹는 송아지의 식이성 연변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과 같이 곤포 사일리지를 포유중인 어미소에게 가급적 급여하지 말라고 권장하는 대부분의 경우 위와 같이 영양소 함량의 평가가 없이 제한 급여하는 농장에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요약 드리면

1. 급여하실(하고 있는) 라이그라스의 영양소 함량을 분석해 주십시오(지역 조합의 지도계 등에 샘플 분석 요청).
2. 분석 결과가 나오면 분석 결과에 따라 최소~최대 권장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급여 중 검은색/푸른색/붉은색 곰팡이가 발견될 경우 꼭 제거 후 급여 권장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송아지의 설사는 송아지의 생후 일령, 섭취하는 사료(어미젖, 입붙이기 사료, 조사료 등), 환경, 어미소의 산차, 백신접종 유무, 음수 등 수많은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됩니다. 물론 한 가지 원인이 매우 극심한 원인이 되어 설사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2~5개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사료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어미소를 통하여 송아지의 설사로 연결되는 과정 역시 그렇습니다. 가급적 충분한 양질의 초유를 최단기간 급여하시고, 어미소의 영양수준을 부족하지 않게 해 주시면 초기 송아지의 고성장 및 유전능력 발현이 가능합니다.

**Q** 상주에서 소 76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일관사육 농장이고 TMR사료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유독 이 농장의 번식우들이 조산이 잦다고 하는데요, 2개월 정도 빠르게 조산하는 경우도 있고 평균적으로 보름 정도  출산 예정일이 빠르다고 합니다. 예정일보다 빠른 분만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조산 또는 빠른 분만은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A** 소의 조산 원인에는 병원체 감염, 영양부족, 만성허약, 기아, 극심한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병원체감염에는 자궁내막이나 태반에 염증을 초래해서 임신기간이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영양부족은 임신유지에 필요한 특정영양소가 결핍되는 경우인데 15개 이상의 영양소들이 상보적으로 관여합니다. 만성허약이나 굶주림 등은 태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관계로 조산이 됩니다.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지면 코티솔 같은 부신피질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되어도 조산이 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원인이 해당되는지는 현장에서의 면밀한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성허약, 굶주림, 스트레스 등은 원인이 아닐 것 같고 병원체감염이나 특정영양소 결핍 중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식기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 종류가 다양하고 번식유지에 미치는 영양소도 종류가 다양한 관계로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TMR사료를 교체하거나 번식우용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하는 등으로 급여시스템을 변경하고 조산우 발생시엔 후산물과 어미소 혈액을 채취하여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 병성감정을 의뢰해 보시길 권합니다.

**Q** 집에서 초유떼기를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송아지를 가지고 오면 3~5일 정도에 설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농가에서는 우유를 먹다가 저희 집에 와서는 분유를 먹여서 그런지 꼭 설사를 하네요. 분유량은 200g에 물 1.5L 정도 주고 있는데 너무 분유량이 많은 건가요? 주변에 물어보면 분유량은 똑같이 하고 물을 더 넣어 주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해야 설사를 적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설사를 시작하면 멸균 우유를 사다 주고 있는데 감당이 안 되네요. 분유를 먹이며 설사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분유량과 물량의 배합량이 틀려서 그런지 알 수가 없네요. 분유량과 물량의 적정 배합비도 알려 주세요.

**A** 초유떼기 송아지에게 대용유를 급여하기 위한 분유량과 물량과의 일반적인 혼합비율은 물 1.5리터에 대용유 250g을 넣거나, 물 1.8리터에 대용유 300g을 넣습니다. 송아지가 설사를 하는 경우는 설사병에 걸려 있거나 우유 등을 과량 섭취할 때입니다. 수송 후에는 이동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우유 섭취에도 불구하고 설사 등의 소화장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정상적인 대용유 급여량보다는 약간 줄이고 대신 물 급여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송 후 2-3일이 지나면 대용유 급여량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급여방법에 있어서도 일일 2회 급여량보다는 일일 3회 이상 나누어서 급여하면서 적응기간을 갖게 함으로써 설사 등 소화 장애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초유떼기 송아지의 경우에 생리적 또는 환경적, 수송에 따른 복합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설사병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수송 후에는 스트레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선 편안한 개체별 사육환경에서 격리사육하면서 적응을 위해 대용유 급여를 포함한 사양관리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양관리가 필요합니다.

**Q** 양돈 관련 계절별 사양관리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A** 계절별관리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생산성 저하, 폐사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겨울엔 추위로 인해 돈사를 밀폐시키거나 환기량을 줄이기 때문에 유해가스의 증가, 환기량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환기관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샛바람의 경우에 체감온도 문제로 금세 호흡기질병이나 설사로 이어지는 문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질병으로는 PED가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할 질병으로 생각됩니다.
2. 봄 특히 3월에는 폐사율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이는 겨울철에 밀폐된 공간에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일교차가 5도 이상이 나는 환절기의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입니다. 가을철과 마찬가지로 일교차가 5도 이내로 맞춰주는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3. 여름철은 역시 돈사온도가 27도 이상이 되면 모돈, 비육돈의 경우 사료섭취량 저하, 비유량 저하, 발정이 잘 안 오고 수태율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 계절별로는 가장 큰 피해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돈사온도를 27도 이하로 유지하거나 체감온도를 떨어뜨리는 바람, 얼음, 최근에는 모돈을 위한 에어콘 설치 등 온도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4. 가을엔 봄철과 마찬가지로 일교차를 최대한 줄이는 관리가 중요한데 최저온도가 15도 이하로 떨어져도 깜빡하고 새벽에 창문을 열어놓는다든지 하는 실수를 범해서 유산이 증가하거나 갑자기 급성폐렴으로 폐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가을에 접어드는 시기에 새벽온도 관리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 농협사료, 2022년 사업추진 결의대회 개최
### ‘축산농가의 힘이 되겠습니다!!’




농협사료는 1월 14일 농협사료 본사 회의실에서 전 본부장 및 지사무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국제원료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축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구책 마련에 집중했다.

농협사료는 선제적 초 비상경영체제로의 전환으로 관리성예산 축소, 고강도 원가절감에 집중한 긴축경영을 실시하는 한편, 농가실익지원을 위한 사양시설 지원, 드림서비스(수의, 방역, 컨설팅)를 확대하고 디지털 플랫폼 확대개발, R&D센터 신설, 친환경 스마트공장 신설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상태 대표이사는 “고곡물가 지속에 따라 초비상경영으로 대응하고 각종 지원확대 및 제품 리뉴얼을 통해 양축농가 실익제고에 기여하자”고 밝히고 “디지털기반의 비대면 컨설팅 확대 등 데이터 영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임직원이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축산농가에 힘이 되자”고 당부했다.

농협사료는 작년부터 고강도 비상경영대책으로 임원급여 반납, 업무용차량 감축, 고정투자 감축, 관리성예산 축소 등의 긴축경영을 지속 유지하며 곡물가 급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농협사료, ‘진심’으로 송아지 초기 성장 극대화
### 신제품 ‘진심 시리즈’ 4종 출시…대사각인 기술 접목, 한우 육량·육질 향상시키고 사육기간 단축, 생산비 절감, 젖병·온도계 증정 이벤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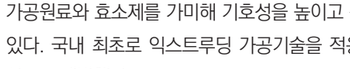



농협사료가 한우 송아지의 초기 성장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프리미엄 송아지 신제품 ‘진심 시리즈’를 10월 1일 선보였다. 농협사료는 초기 성장 극대화를 통해 한우 육량·육질 등급을 향상시키고 사육기간을 단축해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농협사료는 이번 신제품 진심 시리즈에 대사각인(metabolic imprinting) 기술을 접목했다고 밝혔다. 송아지 출생 후 대사각인 기술을 적용하면 송아지 반추위 융모가 발달하고 지방 발달이 가속화되는 등 빠른 시일에 육질을 완성할 수 있어 한우의 사육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사료의 진심 시리즈에 이 같은 최신 기술이 반영된 것이다.

농협사료는 “최근 한우산업의 최신 기술인 고영양을 통한 송아지 생산 효율성 극대화는 출생 후 대사각인을 통해 장내 소화효소 및 호르몬 개선 효과를 나타내 사료의 소화효율을 높이고 육성률을 개선시킨다. 이는 고급육 생산과 출하시기를 단축해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적인 사양관리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기술을 접목하면 번식우의 송아지 포유에 따른 영양 손실을 줄여 번식기간 단축이라는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고 단축된 포유기간에 최적의 초유와 대용유 공급, 어린 송아지 사료의 중요성은 축산 선진국의 여러 사례에서도 이미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송아지 단계별로 선보인 진심 시리즈는 ‘진심 초유’, ‘진심 대용유’, ‘진심 링크사료’, ‘진심 어린송아지사료’ 등 4개 제품이다. 초유와 대용유는 농협사료가 처음 선보인 제품이다.

우선 ‘진심 초유’는 기존의 면역성분만을 강화한 대용초유가 아닌 분만 당일 생산한 초유를 분말 가공한 제품으로 면역글로블린이 20% 이상 함유됐고 초기 체지방 부족에 따른 성장 부진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난황분말을 함유해 단백질과 지방 공급을 강화했다. 또 영양과 면역력이 증진되도록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최적의 조합으로 설계했다.

또 다른 신제품 ‘진심 대용유’에는 조단백 25% 이상, 조지방 22% 이상, 비타민A 2만500IU/㎏ 이상 함유됐다. 이는 유럽의 상위급 제품 대비 높은 영양소 함량을 기준으로 설계됐고 용해도가 99% 이상 유지되는 유성분 원료만을 엄선했다.

‘진심 링크사료’는 전분함량 40%, 조단백 24% 이상으로 설계했다. 탄수화물 소화를 극대화하고 영양소 공급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특수 가공원료와 효소제를 가미해 기호성을 높이고 식이성 설사를 예방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익스트루딩 가공기술을 적용한 프리미엄 입붙이기 사료도 개발했다.

‘진심 어린송아지사료’는 루핀과 전지대두, 대두박을 주성분으로 반추위 우회 단백질 40% 이상으로 설정해 증체량을 크게 개선했고 설사 예방에 역점을 두기 위해 장융모 발달을 위한 프리믹스 강화, 연변방지 원료 및 첨가제를 차별화했다.

농협사료는 이번 신제품과 기존 안심시리즈(육성비육, 숙성비육사료)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고 농협사료의 단계별 프로그램을 접목하면 28개월령 출하, 목표체중 82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출하월령이 30.3개월(2020년·축산물품질평가원)인 점을 감안하면 출하기간을 약 두 달 정도 앞당긴 것이다. 출하월령 단축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정부 정책인 탄소 저감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협사료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을 통해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리미엄 송아지 제품 ‘진심 시리즈’를 출시했다.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축산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은 물론 진심(眞心)으로 농가의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사료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지역별 가축시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제품 홍보와 샘플 증정행사를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축시장 경매가격 최고가를 달성하는 농가에게 신제품 시리즈 1세트와 소정의 경품을 제공한다. 또 초유와 대용유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인공포유기(젖병) 또는 온도계를 지급하는 행사도 추진한다. 해당 이벤트는 증정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 농협사료, 축산농가 일손돕기
### 양평 소재 한우농가 찾아 영농작업 지원



농협사료는 10월 19일 경기도 양평군 소재 한우농가의 일손돕기에 나섰다.

농협사료 임직원들은 이날 국제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농협사료 이용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우사바닥청소, 폐자재 제거 등 영농작업 지원은 물론 농장주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근수 축산농가는 “궂은 날씨에도 농장 주변 환경개선에 도움을 준 농협사료 임직원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농협사료는 “지속적인 축산농가 일손돕기와 긴축경영을 통해 농가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농협사료, 한우능력평가 ‘대통령상’
### 무안 박성순 씨 출품축 ‘영예’ 장관상 등 총 8개 부문 석권




농협사료가 제24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포함해 8개 상을 차지했다.

11월 5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열린 ‘제24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시상식’에서 전남 무안의 박성순 씨가 출하한 출품축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해당 한우는 도체중 542㎏, 등심단면적 136㎠ 등 육량과 육질에서 최고점수를 얻었으며, 경락가격이 ㎏당 13만원으로, 지육가격이 7,046만원에 달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김영관·경북 경산), 한국종축개량협회장상(성희수·전북 진안), 농촌진흥청장상(김용대·경남 하동),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손현균·전남 무안),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상(임복래·전남 곡성),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상(권영섭·경북 문경),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추진협의회장상(조수한·강원 춘천)을 수상한 농가들도 농협사료 이용 농가다. 농협사료 관계자는 “12개 부문 중 전이용 농가 5농가를 포함해 총 8개 부문을 석권해 사료명가를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우수한 성적으로 농협사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주신 농가들에게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 “농협사료를 전적으로 믿고 이용해준 농가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번에 출시한 프리미엄 송아지 사료, 진심시리즈를 바탕으로 대용 초유부터 출하까지, 진심시리즈에서 안심시리즈로 이어지는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농가 지원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농협사료 ‘2021년 한우 분야 축산기술자문회의’ 개최




농협사료는 11월 24일 자문위원 엄경익(횡성축협 조합장), 이준대(태평양농장 대표), 박병기(강원대 교수), 최병렬(미래생명자원 이사), 길덕윤(지티아그로 대표), 장익준(리얼팜 대표), 이선복(BA플러스 전무) 7명과 농협사료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사료 강원지사 회의실에서 ‘2021년 한우분야 축산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농협사료 윤석준 박사가 2021년 농협사료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박중국 박사는 R&D 방향과 성과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각 자문위원별 주제발표를 시작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회에서는 태평양농장 이준대 대표가 사육단계별 안심시리즈 적용으로 도체중과 등심단면적이 각각 32kg, 10㎠ 향상 되었으며, 이번에 개발한 농협사료 진심시리즈 송아지사료를 최근 적용하여 육성률이 더욱 개선되었다고 효과를 인정했다. 또한 횡성축협 엄경익 조합장은 혁신적인 농협사료 신제품이 개발되었고 현장에서 호응이 좋지만 마케팅이 부족해 조합원에 더욱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진하였으며, 이선복 박사는 현장 직원뿐만아니라 모든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컨설팅 책자개발과 교육을 강조하였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정책방향이 환경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이번에 단기적인 연구보다는 중·장기 연구를 통해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성한 대응이 필요하며,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강화, 균일한 배합사료 품질유지, 사료스펙 차별화를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농협사료는 이번 한우 분야 축산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농협사료가 축우사료 시장 리더로 든든한 농가의 지원자가 되고, 고곡물가와 향후 한우가격 하락 등 험난할 시황에 귀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평하였다, 또한 사료 품질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농협사료의 경쟁력 제고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칼럼

글 박중국 | 농협사료 R&D센터 / 농학박사

# 한우 겨울철 환기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및 사양관리 방안

한우는 대체적으로 추위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온이 지나치게 떨어질 경우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어 축사 내 온·습도와 환기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사는 개방식 축사이기 때문에 햇빛과 바람 관리만 잘해도 우사 환경이 개선되는데, 계절적으로 겨울로 접어들면서 소가 추위에 시달리며 결로가 일어나 바닥이 질어지는 농가를 많이 보게 된다. 특히 환기는 외부의 기상조건과 소의 사육단계 등을 근거로 보온 수준과 환기량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습도뿐만 아니라 풍속·풍향 등의 기류 상태 및 세균, 먼지, 암모니아가스, 냄새 등 생물·화학적 상태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해 소의 생산성과 사료효율을 최적화해야 한다. 이 경우 첫째 밀사를 방지할 경우 바닥은 자연환기에 의하여 충분히 장기간 사용할 수가 있고, 둘째로 계절별 일사각과 바람의 방향을 감안해 적절한 채광을 해주고 바람의 이용과 차단을 해 준다면 소는 사계절 아늑함을 느끼고 청결을 유지하며 관리자의 노력도 최소화 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또한 환경기온이 떨어짐에 따라 송아지, 번식우, 비육우의 성장특성에 맞게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요령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시설 및 환기개선을 통한 겨울철 축사관리 방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양관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시설 및 보온관리

### 보온과 환기의 조절

겨울철에는 우사의 보온과 환기를 잘 조화시켜야만 소의 생산성과 사료효율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사 외부의 기상조건과 소의 사육단계 등을 근거로 보온 수준(목표온도)과 환기량을 결정한 후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열 상태(온·습도 등)뿐만 아니라 기류 상태(풍속 및 풍향 등) 및 생물·화학적 상태(세균, 먼지, 이산화탄소, 암모니아가스, 냄새 등) 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이다.
겨울철 우사 내부의 목표온도 설정요령과 환기시설 관리요령은 다음과 같다.

- ◉ 우사 외부의 온도가 적온영역 범위 내에 속할 경우
  - 목표온도를 우사 외부의 온도와 동일하게 설정
  - 찬바람을 받는 방향의 윈치커튼을 제외한 모든 윈치커튼을 개방
- ◉ 우사 외부의 온도가 생산환경 임계온도의 하한치보다 낮을 경우
  - 목표온도를 우방 바닥과 급수라인 결빙 방지를 위해 4℃로 설정
  - 최소 환기만을 위해 양 측면의 윈치커튼을 최소로 개방
- ◉ 우사 외부의 온도가 생산환경 임계온도의 하한치보다 높고 적온영역의 하한치보다 낮을 경우
  - 외부온도가 4℃ 이상일 경우에는 목표온도를 외부온도보다 1~2℃ 높게 설정하고, 외부온도가 4℃ 이하일 경우에는 목표온도를 우방 바닥과 급수라인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4℃로 설정
  - 목표온도에 따라 적절히 윈치커튼의 개방면적을 조절해 환기
- ◉ 배기구 설치
  - 환기를 위한 배기구가 있어야 함
  - 부분 또는 연속 용마루 배기구 : 항상 개방
  - 개폐형 지붕 : 최소 환기를 위한 최소 면적 이상 항상 개방
- ◉ 우사 양 측면에 윈치커튼 설치
  - 보온을 하기 위해서는 우사 내부를 외부와 차단하는 것이 필요
  - 윈치커튼의 최상단은 최소 환기를 위하여 일정 면적으로 항상 개방
- ◉ 우사 양 끝 부분에 벽 또는 커튼 등 설치
  - 보온을 하기 위해서는 우사 내부를 우사 외부와 차단하는 것이 필요
  - 작업기의 통행이 가능해야 함
- ◉ 사육단계별로 각각의 우사 구비 또는 같은 우사일 경우 칸막이 구비
  - 적온 영역과 생산환경 임계온도가 사육단계별로 다르기 때문임

### 윈치커튼 사전점검 등 장기적 혹한에 대비

한우는 대체적으로 추위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겨울철 혹한기에 생산 환경 임계온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면 생산성이 저하되므로 보온시설 관리는 필수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윈치커튼 등 보온시설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추운날씨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특히 재래식 우사의 경우 출입문이나 창문을 비닐로 씌워 보온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때 지나치게 보온을 하면 환기가 불량해져 호흡기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겨울철 비나 눈이 올 경우 체온유지가 힘들고 우사의 깔짚이 젖게 되므로 윈치커튼이나 처마를 길게 해 이를 막아주고 깔짚도 자주 보충하거나 교환해 주는 것이 좋다.

한편 어린송아지는 큰소에 비해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추위에 대한 스트레스에 약하므로 별도의 송아지 방을 만들어 어미의 출입을 막고 보온등이나 보온매트를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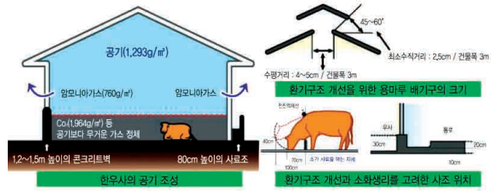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송아지 보온 대책

### 지역의 천문과 기후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응용

차광과 채광에 있어서 저온기에는 직사광선이 우사에 비치는 시간을 가장 길게 하고, 고온기에는 직사광선이 우사 내를 비치는 면적이 2분의 1범위 내외가 되도록 하는 한편 그늘은 우사바닥 전 면적을 따라 이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사의 설치 방위에 따라 지붕의 지붕재를 채광구역과 차광구역을 구분해 설치해야 하고 지붕의 차광구역의 폭과 채광구역의 폭은 최소한 5~6m가 되게 한다.
우리가 하나의 건물로 여름에는 빛을 통제하고 겨울에는 채광시간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절후(24절기)에 따라 해가 뜨고 지는 방위와 태양이 지나가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바람의 이용과 차단 또한 환경관리의 중요한 요소다. 우리나라는 북반구의 편서풍 지역이어서 여름에는 주로 서남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겨울의 주 풍향은 서북간이 된다.
따라서 여름바람의 방향과 그 바람이 불어가는 방위에 통풍을 막는 시설이나 장애물을 없애 자연환기를 돕고 겨울에는 서북방위를 가려주는 것만으로 간단히 찬바람을 막아줄 수 있다. 이런 기후적 특성은 늘 일정하므로 절대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바람을 잘 이용하는 우사에서는 여름에도 소가 더위를 거의 타지 않으며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크게 줄여준다.



남향으로 설치한 개방형 지붕개폐식 깔짚우사




적정환기를 위한 한우사 건축요령

## 사양관리 및 기타관리

### 사료급여량 10~15% 정도 증량

겨울철에는 소가 자신의 체온유지를 위해 열을 많이 발생시키게 되므로 사료급여량을 늘려줘야 한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바깥기온이 영하 5℃일 때 한우의 사료섭취량은 약 3~8% 정도 증가하며 영하 5~15℃일 경우 8~10%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상시의 사료량으로는 정상적인 성장발육이 어려우므로 혹한기에는 사료급여량을 평소의 10~15% 정도 늘려줘야 한다.

또한 겨울철에는 볏짚 위주의 조사료가 급여돼 무기물 등 미량 영양소가 결핍되기 쉬워 피부질환 등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비타민·광물질 제재를 우방에 비치해 소가 항상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얼거나 부패된 사료를 급여하면 소화기 계통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습식 섬유질배합사료를 급여하는 농가는 사료가 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임신우의 경우 주로 배합사료와 볏짚에 의존해 관리가 이뤄져

비타민A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료첨가제(비타민A, D, E 제제)의 형태로 분만 2개월 전부터 5~10g, 분만 후 포유기 3개월간 10~20g 정도를 보충시켜주는 것이 출산과 질병예방에 효과적이다.

◉ 번식우 사양관리
- 겨울철은 번식활동이 적은 유지 사양기간이라 할 수 있어 볏짚 위주의 조사료 급여시 농후사료를 3.0~3.5kg 정도 급여
- 임신우의 영양상태가 나쁘면 허약하고 체중이 작은 송아지 생산
- 임신말기 2~3개월 동안 태아의 발육속도가 높기 때문에 10~20% 농후사료 추가급여하며, 분만 후 모유를 통해 영양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10~15% 정도 증량급여

◉ 송아지 사양관리
- 갓 태어난 송아지는 온몸이 양수에 젖어 있으므로 드라이기나 수건을 이용해 신속히 체열발산을 막고 빠른시간 내 초유를 먹이도록 함
- 설사를 방지하기 위해 초유를 먹이기 전 경구로 투여하는 설사 예방 백신 접종
- 보온매트, 송아지 전용집, 마른건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온 상태 유지하며 샛바람이 스며들면 호흡기 발생이 많아지므로 철저히 막아줌
- 피부질환이 의심되는 개체가 발견되면 즉시 격리해 유황연고에 항진균제를 혼합해 발라줌




**사양겨울철 신생송아지를 위한 관리방법**

◉ 비육우 사양관리
- 겨울철 비육우는 저온 적응성이 양호해 기온이 떨어져도 큰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 반면 사료섭취량이 증가하여 증체에 유리할 수 있음
- 사육단계별 목표 사료급여량보다 10~15% 증량급여해야 하며, 깔짚 교체를 통해 포근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함
- 10℃ 이상 온수를 급여하며, 급수관이 얼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정기적 깔짚 교체 및 축사소독 등 방역·위생관리 철저**

겨울철 축사 내 주기적 깔짚 관리로 소의 부상이나 피부병 등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진청에 따르면 만약 겨울 동안에 깔짚을 너무 오랫동안 교체하지 않아 지나치게 질게 되면 소가 누워 휴식을 취할 때 한기를 느껴 편하게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우사 바닥이 얼어 소가 미끄러지거나 발굽 등에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맑은 날에는 일광욕을 시키고 피부손질을 통해 피부병을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겨울철 먹이부족 등으로 야생동물들이 축사에 출입해 가축질병을 전파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차단해야 하며, 구서제를 투약해 쥐로 인한 피해예방과 동시에 정기적인 축사 소독으로 악성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아지 면역력 높여 호흡기 질병과 설사 예방**

겨울철에는 송아지의 설사와 호흡기 질병이 많이 발생되며 폐사율도 높은 편이다. 이와 관련해 갓난 송아지에게 처음 초유를 먹이기 전 어미소의 유두에 묻은 분뇨를 깨끗이 닦아주고 유두 주위의 털을 깎아준 다음 초유를 충분히 섭취시켜 면역력을 높여줘야 한다.

또 송아지나 육성우들이 있는 우사 천정에 물방울이 맺혀있다면 환기가 나쁜 곳이므로 버짐 등 피부질환으로 고통 받을 수 있어 윈치커튼 등으로 사방을 막지 않도록 주의하고 환기가 원활토록 해야 한다. 만약 피부질환이 의심되는 개체가 발견되면 즉시 격리해 치료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겨울철에 한우농가가 신경을 써야 할 시설관리 및 일반사양관리 부분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나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 대한 관리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가 과연 소라는 동물의 생리에 최적화된 관리인가 아닌가를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한우 산업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호당 사육두수가 규모화 되고 산업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육두수 증가와 더불어 기후변화 및 FTA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여건들로 축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소의 생리에 맞는 사양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고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 나가는 길이라 굳게 믿어본다.





# 프리미엄 진심 시리즈 FAQs

**진심 초유**




**Q. 왜 대용 초유를 급여해야 하나요?**

**A.** 신생 송아지의 핵심 관리포인트는 초유 급여입니다. 농장환경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어미의 산차가 초산이거나 분만우의 서열이 우방에서 낮을 경우 초기 신생 송아지 관리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만 2시간 이내 양질의 초유 섭취량이 신생송아지의 면역능력 획득에 매우 중요**합니다.

진심초유(대용초유)로 즉각적인 면역능력 전달이 가능합니다!!

**Q. 분만 직후 어미소가 죽었어요.
초유 급여 어떻게 하죠??**

**A.** 진심 초유의 주 성분은 분만 당일(24시간) 암소의 초유분말입니다.

어미소에 분만사고가 발생되었거나 분만 당일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초유를 대체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으로 원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후 24시간(2일) 이내에 진심 대용유를 최소 0.8kg(8포) 이상 급여하시면 됩니다.

# 프리미엄 진심 시리즈 FAQs

진심 초유




**Q.** 송아지가 너무 허약해요.
초유를 빨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죠?

**A.** 어미소의 분만은 일반적으로 8시간 이내에 종료됩니다(꼬리들기에서 태반 분리). **어미소의 건강, 영양 수준, 산차, 서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분만 지연 및 난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난산의 경우 송아지의 활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생송아지에 초기 면역 공급을 위하여 **초유 주입기를 이용하여 강제 급여**가 권장됩니다.

**Q.** 좋은 초유는 어떤 초유를 말하나요?

**A.** 최상의 품질의 초유 조건을 요약해 보면 1) 분만 전 어미소의 컨디션이 최상의 상태이고 2) 면역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3) 균형적인 영양구성(지방 함량)일 때 좋은 초유라 할 수 있습니다.

외관적으로는 **노란 크림색의 점도가 있는 상태일 때 일반적으로 양질의 초유**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분만 전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어미소의 영양공급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Q.** 진심초유와 어미소의 초유 중 최고의 품질, 최적의 선택은?

**A.** 진심초유는 대용초유입니다. 송아지에게 최적의 초유는 어미소가 그 농장의 환경에 맞는 면역 구성을 갖춘 초유를 신생 송아지에게 공급할 때 최적의 초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미소의 산차(저산차, 노산) 및 분만 전 관리가 부족할 경우 좋은 품질의 초유를 기대하기 어렵고 초유 생산량 역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적의 대안은 농협사료의 진심초유(대용초유)입니다. 최상의 품질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Q.** 진심초유를 2일령 이후 액상 또는 가루로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A.** 진심초유에 다량 함유된 면역성분 및 고농도의 지방 및 단백질은 송아지의 초기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생후 2일령이 경과되면 면역성분을 단순 영양소로 이용하게 됩니다.

비용대비 효과 및 기능성을 고려한다면 **진심초유를 2일령 이후 추가 급여하기 보다는 진심 대용유를 적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초기 성장 극대화가 가능하겠습니다.**

**Q.** 인근 목장의 남는 초유 급여해도 문제 없을까요?

**A.** 초유를 급여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어미소가 수유를 거부하는 경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받아온 냉동 초유를 가온하여 급여 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중 중요한 것은 살균과정이 필수적이고 최대한 신선한 초유가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관리가 부족한 초유는 존스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각종 질병의 직접적인 확산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관리 및 가공된 대용초유의 급여가 권장됩니다.**

글 이승형 | 농협사료 중소가축사료분사 / 농학박사

전문가칼럼

# 양돈

## 2022년 양돈 전망

### [2022년 전망]

#### ◉ 기준의 변화(준거가격)

경제용어 중 준거가격(Reference price)이라는 단어가 있다. 준거가격이란 어떤 제품이 있을때 구매자가 '이 정도의 가격이면 될 것이다'라고 마음속으로 설정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양돈사료 가격의 준거가격은 최근 1년 크게 변하여 1년 전 여신사용 농가의 사료가격은 현재 현금거래 농가의 사료가격이고, 현재 여신사용 농가의 사료가격은 높아도 너무 높게 느껴질 것이다. 이 분만이 아니다. 출하돼지의 제주 제외 탕박가격도 그렇다. 작년 말(2021년 12월) 돈가가 6,000원/kg을 넘으면서 연중 최고돈가를 연일 경신한 적이 있어 돼지가격이 높다고 했는데 과연 높았던 것일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필자의 계산에 의하면 MSY 18두 농장에서 현금 거래농가의 손익분기 돈가는 4,600원/kg 내외이고 여신사용농가의 손익분기 돈가는 약 5,100원/kg 내외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사료가격 상승, 외국인 근로자 부족에 의한 인금 상승, 물가상승, 환경규제로 인한 농장의 비용상승 등을 감안 하면 더 높을 수 있음). 6,000원/kg이란 돈가는 손익분기 돈가와 비교해 볼 때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계절적 하락 시기인 2022년 초 제주제외 탕박가격이 5,000원/kg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고 싶다. 이 돈가는 일부농장에게 손익분기 돈가 이하의 매우 낮은 돈가지만 그렇게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 즉 출하돈에 대한 준거가격이 변한 것을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돈가가 높다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준거가격의 변화에 대해 먼저 설명하였다.

#### ◉ 국제 곡물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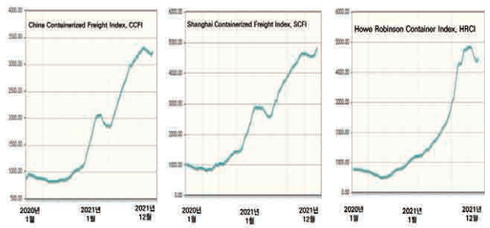
**[그림 1] 국제 곡물가격 변화**



a. 옥수수 b. 대두박 c. 소맥

[그림 1] 미국의 주요곡물 선물가격으로 대략적으로 약 5개월 이후 국내 곡물가격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소맥 가격은 재고량 감소 및 수요 증대에 따른 수급상황 악화로 인하여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습윤한 날씨로 인하여 작황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옥수수와 대두박은 공급 증가 부담 및 수요 측면의 불확실성으로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1~2022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이 사상 최대인 27억 9130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2021년도 대비 0.7%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2021~2022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이보다 많은 28억 960톤으로 **2020~2021년보다 1.7%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 2021~2022년도 세계 곡물 기말 재고량은 8억 2210만톤으로 2020~2021년도 대비 0.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2] 해상운임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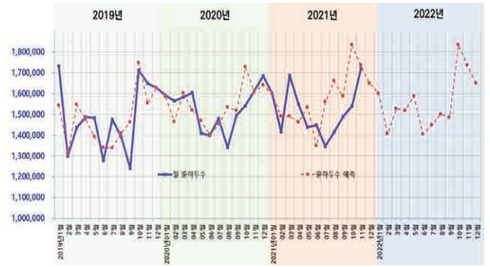



a. 중국컨테이너운임지수 b.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 c. 영국 Howe Robinson社 컨테이너 지수

[그림 1]의 옥수수와 대두박의 경우 2021년 중순 이후 하락해 국내 도입가격이 낮아지나 했으나 [그림 2]와 같이 주요 해상운임이 2020년 초보다 2021년 말 약 4배가 상승했다. 이러한 부대비용 증가와 소비량 증가로 인한 재고량 부족 예상에 의해 곡물가격이 재상승하여 2022년 추가적인 사료가격 상승요인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다. **2022년 전체적인 곡물시장은 좋지는 않을 것 같다.**

#### ◉ 출하두수(사육두수) 전망

**[그림 3] 2022년 출하두수 예측**




**[표 1] 2022년 출하두수 예측**

(단위, 만두)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
| 2020년 | 159 | 157 | 158 | 160 | 141 | 140 | 148 | 134 | 150 | 154 | 161 | 168 | 1831 |
| 2021년 | 160 | 142 | 169 | 155 | 144 | 145 | 135 | 142 | 149 | 154 | 172 | 165 | 1830 |
| 2022년 | 160 | 141 | 153 | 152 | 159 | 141 | 145 | 150 | 148 | 154 | 172 | 165 | 1839 |

농·축산물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향후 돈육 생산량을 예측하기 위해 출하 몇 개월 전 어린돼지와 임신돈, 포유돈 사료는 중요한 정보로 이용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2022년 중반기까지의 출하두수를 예측해 보았다. 2022년 10월부터는 전년과 동일한 출하두수를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 올해 약 1,839만두 출하가 예상되어 2021년대비 총 출하두수가 0.5% 증가될 것 같다. 이 0.5%라는 수치는 사육두수 및 사료 생산량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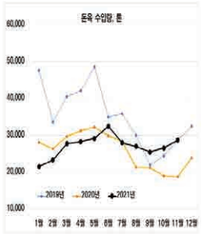
**[표 2] 분기별 농장수 및 출하두수**

| 구분 | 농장수 | | 출하두수, 만두 | |
|---|---|---|---|---|
| | 호 | 평균 | 두수 | 합계 |
| 2019 1/4 | 6,176 | | 447 | |
| 2019 2/4 | 6,160 | | 425 | |
| 2019 3/4 | 6,137 | | 411 | |
| 2019 4/4 | 6,133 | 6,152 | 499 | 1,781 |
| 2020 1/4 | 6,192 | | 474 | |
| 2020 2/4 | 6,189 | | 441 | |
| 2020 3/4 | 6,180 | | 432 | |
| 2020 4/4 | 6,078 | 6,160 | 484 | 1,831 |
| 2021 1/4 | 6,179 | | 470 | |
| 2021 2/4 | 6,133 | | 444 | |
| 2021 3/4 | 6,084 | | 425 | |
| 2021 4/4 | - | 6,132 | 490 | 1,8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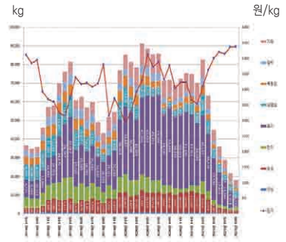
2022년 약간의 출하두수 상승이 예상되는데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농장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농장의 개보수를 통해 사육두수가 증가가 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건축자재 및 소비재 비용 상승으로 2022년 돈사의 확장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이러한 농장의 확장뿐 아니라 노후와 시설에 대한 개보수도 쉽게 결정하지 못할 수 있어 이러한 요인들로 2022년 출하두수는 쉽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

#### ◉ 소비 전망

**[그림 4] 연도별 돈육수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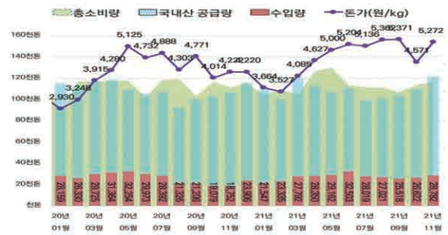



**[그림 5] 국내산 돈육의 부위별 재고량 변화와 돈가**




2021년 초 3,500원/kg 이하 저돈가[그림 5]로 [그림 4]와 같이 돈육 수입물량이 일정기간 급감했었다(1월~5월). 그 결과 [그림 5]와 같이 2021년 3월 8만톤 이상의 국내산 재고는 6개월 만에 2만톤 대로 급감해 돈가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돈육 자급율이 70%라고는 하지만 상당부분 수입육에 의해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국내산 돈육 부족으로 수입 냉장 돈육은 전년 누계대비 40%나 증가했고, 이와 같은 요인이 국내산 돈가를 급등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은 매월 공급된 국내산 돈육 및 수입량의 합과 그 달 소비한 돈육을 추정하여 나타낸 그래프인데 수입량이 감소하기 시작한 2020년 7월부터 총 돈육재고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월별 돈육의 수요와 공급 현황**




**[표 3] 2022년 돈육 수급 전망**

(단위 : 톤)

| 구분 | 국내산 돈육 | 수입 돈육 | 국내산 소비량 | 수입산 소비량 | 총 소비량 | 국내산 재고량 (12월말 기준) | 수입산 재고량 (12월말 기준) | 총 재고량 (12월) | 돈가 평균 (원/kg) |
|---|---|---|---|---|---|---|---|---|---|
| 2016년 | | | | | | 3.5 | **6.2** | 9.6 | |
| 2017년 | 99.8 | 36.9 | 99.8 | 36.2 | 136.1 | 3.4 | **5.5** | 8.9 | **4,740** |
| 2018년 | 103.6 | 46.4 | 101.2 | 51.3 | 152.4 | 5.8 | **10.4** | 16.2 | **4,358** |
| 2019년 | 106.6 | 42.1 | 104.7 | 42.4 | 147.2 | 7.7 | **10.7** | 18.4 | **3,843** |
| 2020년 | 109.7 | 31.0 | 109.8 | 27.2 | 137.0 | 7.5 | **6.8** | 14.4 | **4,221** |
| 2021년 | 109.6 | 32.8 | 114.5 | 33.9 | 148.3 | 2.7 | **7.9** | 10.6 | **4,752** |
| 2022년(E) | 110.1 | 35.0 | 111.0 | 36.0 | 147.0 | 1.8 | **6.9** | 8.7 | **전년대비 상승예상** |

* 소비량은 재고를 감안한 추정치 임

코로나19의 확산에 의한 방역 이슈로 향후 소비량의 예측은 어렵지만 2022년 어느 정도 생산량의 추정이 가능하여 [표 3]과 같이 연도별 추세에 의한 산술적 평균으로 소비량을 대입하여 돈육 수급 전망을 표를 만들어 보았다. 국내산 돈육의 생산량은 [그림 3]의 출하두수 증가 비율 0.5%를 대입 적용하였고, 수입 돈육은 현재의 수입 트렌드를 연장하여 다소 많은 약 36만톤으로 추정하였으며, 국내산 소비량은 소비재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전년보다는 낮으나, 매년 국내산 돈육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재작년보다는 높은 예측치 111만톤을 넣어 계산하였다. [표 3]에 우리나라 평균 돈가를 넣고 국내산 재고량의 증감과 비교한 결과 국내산 재고량이 전년 대비 증가한 2018년에는 전년 돈가가 4,740원/kg에서 4,358원/kg으로 떨어졌고, 2019년에는 국내산 재고량이 전년 5.8톤에서 7.7톤으로 증가해 그해 돈가는 3,843원/kg으로 급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듬해(2020년) 국내산 재고의 감소로 돈가는 4,221원/kg을 회복했으며 2021년에는 국내산 재고 7.5톤에서 2.7톤으로 급락해 연초 3,500원/kg대의 돈가가 연말 6,000원/kg을 넘어 평균 돈가 4,752원/kg을 기록했다.

요약하면 전년대비 국내산 재고량의 증감 변화가 국내산 돈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2022년은 평가해 보면 국내산의 경우 생산량을 초과한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110.1만톤 생산 vs 111만톤 소비)되어 기말 재고량이 거의 바닥에 가까운 1.8톤이 될 수 있다는 계산 결과를 보인다. 2018년과 2019년과 같이 엄청난 양의 돈육이 수입하지 않는다면 [표 3]과 같이 국내산 재고의 감소가 나타날 것 같다. 그리고 그 재고량 또한 1.8만톤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일 것이다. 즉 2022년은 큰 돈가의 상승이 나타날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 돈가 및 소득 전망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22년 돈가는 올라갈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제주 제외 탕박가격 뿐만 아니라 사료비와 인건비 등 대부분의 생산비가 올라가 손익분기 돈가도 높아질 것이기에 올해 적절한 손익분기 돈가를 추정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 또한 2022년 물가를 고려해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으나 대략 추정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제주제외 탕박가격 상승 분
==========> 약 +700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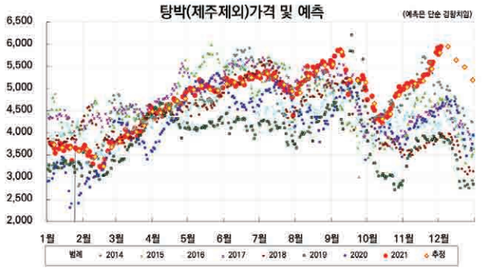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외국인 부족에 의한 인건비 상승 및 물가상승에 따른 자가 노동비 인상에 따른 제주제외 탕박가격 상승 분
==========> 약 +100원/kg 이상

▶ 분뇨처리 및 기타 비용 상승에 따른 제주제외 탕박가격 상승 분
==========> 약 +100원/kg 이상

**※ 오차 감안하여 대략적인 손익분기 돈가는 기존대비 약 900원/kg~1000원/kg 상승예상**

기존에 농장의 손익분기 돈가가 4,000원/kg인 농가라면 올해 손익분기 돈가는 대략 5,000원/kg이 된다. 이 가격에 거래조건 및 농장의 생산성에 따라 손익분기 돈가는 위 아래로 약 ±300원/kg 차이는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021년 평균 돈가가 4,752원/kg에서 2022년 얼마까지 올라야 할까? 5,000원/kg이 되면 고돈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다. 2022년 [그림 7]의 연도별 돈가 그래프에서 맨 위쪽에 2022년 돈가가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손익분기 돈가를 고려하면 그 돈가는 높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

**[그림 7] 지난 8년간 돈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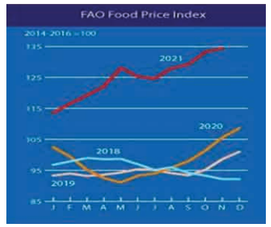



### ◉ 국제 양돈시장

**[그림 8] 주요국의 돼지가격**




**[그림 9]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식품가격 지수**




[그림 8]은 돼지 관련 주요국의 돼지가격을 나타낸 것이다. EU(유럽연합) 국가 대부분이 가축전염병과 환경규제로 돼지 사육두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으며 폴란드의 경우 ASF가 오히려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그림 8]과 같이 유럽 돈가도 낮게 형성되고 있고 그 가운데 자돈가격 마저 큰 폭으로 하락해 향후 EU 돼지의 사육규모는 더 적어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는 질소 저감을 위해 인위적으로 가축두수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중국 내 ASF 발생으로 농가들이 서둘러 돼지 도축하여 일시적 공급 증가로 돈가가 하락했지만 저돈가로 돼지 입식이 줄어 향후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미국에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수입 돈육의 증가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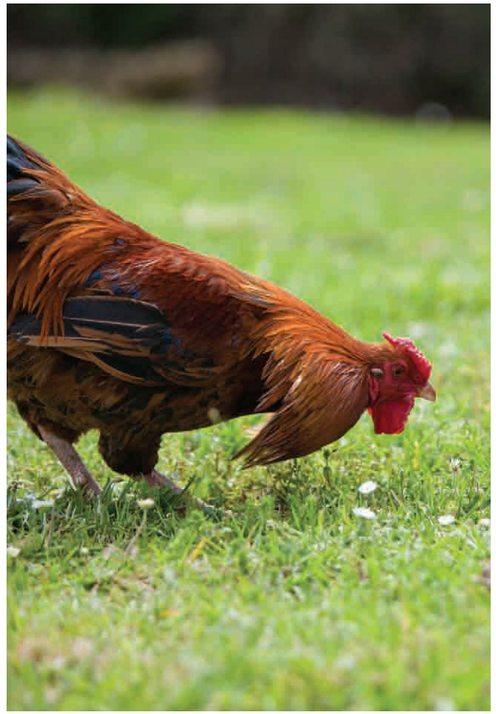


전문가칼럼

# 양계

## 2021년 농협사료 양계제품 우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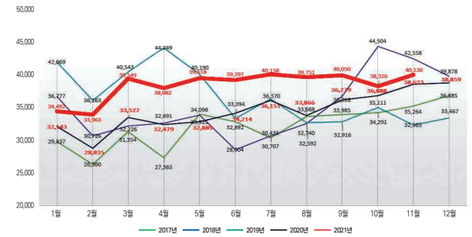
글 김관응 | 농협사료 중소가축사료분사 / 농학박사



2020년 11월부터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많은 가금이 살처분되었으며 2021년 다시 11월 천안 야생조류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메추리, 오리, 육계, 산란계 농장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양계농가들은 정말 어려운 한해 겨울이지만 그나마 지난해 적용했던 살처분 범위가 500m 이내 오염지역은 전 축종을 살처분시키고 3km 이내는 발생 축종만 살처분을 실시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과거에 비해 피해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양계농가를 위한 다른 정부의 대책 및 보상방법 변경 등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 1. 농협사료 2021년 양계사료 생산량

**[그림 1] 2017-2021년 농협사료 양계제품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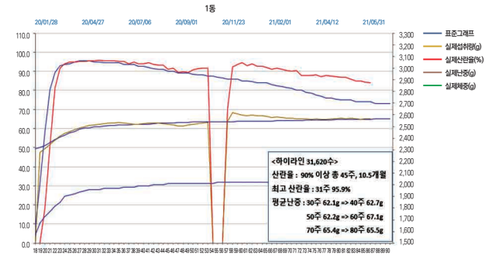

농협사료 2021년 양계제품 생산량은 11월 누계실적으로 423,416톤으로 전년대비 47,522톤, 12.6%로 증가하였다. 2017년부터 집계한 양계제품 생산량 중 가장 많은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5년 이내 가장 많은 생산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 양계 제품별로 11월 누적 생산량은 산란계 제품 303,364톤, 산란 병아리 제품 36,907톤, 육계 제품 70,281톤 등이다. 특히 산란계 제품의 경우 월평균 38,492톤 생산으로 양계 제품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역시 2021년 가장 많은 생산량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농협사료 양계 생산량 증가는 2020년 농협사료 중소가축사료분사가 출범하고 중소가축사료 판매에 노력한 큰 성과라 생각된다. 내년 2022년에도 더 많은 생산량과 우수한 품질로 조합원과 양계농가에 다가가는 농협사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2. 농협사료 2021년 산란계 사료 실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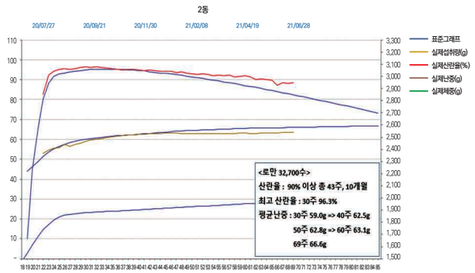
[그림 2]는 농협사료 전남지사에서 사료를 공급 받아 사용하는 곡성의 OO축산의 생산성적이다. 하이라인 브라운 31,620수로 평균 산란율 90% 이상이 총 45주, 10.5개월 동안을 유지하였다. 이 계군의 최고 산란율은 31주령에 95.9%이며, 53주에 약식 환우를 실시 후 86주령 도태까지 종계사 표준 산란율 보다 높은 생산성적을 나타내었다.

**[그림 2] 농협사료 전남지사 OO축산1동 산란기록**




또한 [그림 3]은 같은 농장의 로만 브라운 계군 32,700수로 평균 산란율 90% 이상을 총 43주, 10개월 동안의 우수한 생산성적을 유지하였다. 최고 산란율은 30주 96.3%로 환우를 실시하지 않고 로만 브라운 표준 성적을 상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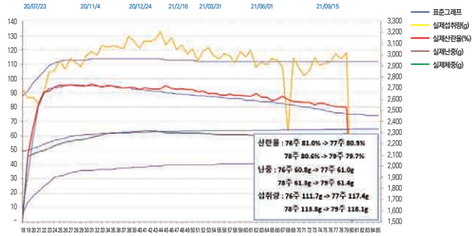
**[그림 3] 농협사료 전남지사 OO축산2동 산란기록**




농협사료 경남지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OO농장의 생산성적이다[그림 4]. 이 계군은 하이라인 브라운 49,080수로 19주에 시산을 시작하여 81주령에 도태되었다. 19주부터 81주령까지의 평균 산란율은 88%이며, 평균 산란율 90% 이상을 총 40주, 9.3개월간 유지하였다. 최고 산란율은 31주령에 96.5%를 나타내었으며, 사료섭취량은 117.1g이었다. 37주령에 평균 산란율보다 낮은 이유는 하절기 고온으로 인하여 산란율, 난중, 사료섭취량 등이 감소하였으나, 하절기가 지난 후 산란율과 난중 등은 다시 회복하였다. 환우를 실시하지 않고 81주령까지 우수한 생산성적을 나타내었으며 기별사양을 통한 난중관리가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농협사료 경남지사 OO농장 산란기록**




마지막으로 경남 양산에 위치한 OO농장의 하이라인 브라운 23,210수의 생산성적이다. 평균 산란율 90% 이상을 31주간 유지하였으며, 19주부터 도태 79주령까지 환우를 실시하지 않고 표준 산란율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최고 산란율은 31주 96.0%를 나타내었다[그림 5].

**[그림 5] 농협사료 경남지사 OO농장 산란기록**




## 3. 농협사료 육계 사료의 생산성적

**[그림 6] 농협사료 육계 사료의 사료요구율 및 생산지수**

| 구분 | 2017년 | | 2018년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 |
|---|---|---|---|---|---|---|---|---|---|---|
| | 사료요구율 | 생산지수 | 사료요구율 | 생산지수 | 사료요구율 | 생산지수 | 사료요구율 | 생산지수 | 사료요구율 | 생산지수 |
| 1월 | 1.55 | 313 | 1.56 | 303 | 1.51 | 319 | 1.50 | 322 | 1.44 | 343 |
| 2월 | 1.51 | 323 | 1.55 | 309 | 1.50 | 327 | 1.45 | 342 | 1.44 | 344 |
| 3월 | 1.51 | 327 | 1.52 | 314 | 1.49 | 322 | 1.44 | 343 | 1.42 | 350 |
| 4월 | 1.50 | 337 | 1.51 | 311 | 1.49 | 328 | 1.41 | 361 | 1.47 | 326 |
| 5월 | 1.54 | 322 | 1.48 | 329 | 1.48 | 336 | 1.46 | 337 | 1.47 | 335 |
| 6월 | 1.54 | 315 | 1.49 | 332 | 1.49 | 325 | 1.39 | 365 | 1.46 | 330 |
| 7월 | 1.58 | 298 | 1.49 | 332 | 1.48 | 334 | 1.41 | 361 | 1.42 | 350 |
| 8월 | 1.55 | 307 | 1.51 | 299 | 1.53 | 312 | 1.42 | 356 | 1.40 | 361 |
| 9월 | 1.52 | 320 | 1.43 | 341 | 1.46 | 346 | 1.44 | 352 | 1.40 | 365 |
| 10월 | 1.51 | 319 | 1.43 | 353 | 1.44 | 350 | 1.38 | 375 | 1.43 | 359 |
| 11월 | 1.52 | 322 | 1.46 | 340 | 1.45 | 345 | 1.40 | 362 | 1.53 | 351 |
| 12월 | 1.57 | 301 | 1.52 | 312 | 1.48 | 332 | 1.46 | 340 | | |
| **평균** | **1.53** | **316** | **1.49** | **323** | **1.50** | **322** | **1.43** | **351** | **1.44** | **347** |

농협사료 육계 사료의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전체 농가의 평균 성적이다. 평균 사료요구율은 1.44, 생산지수는 346이다. 과거의 생산성적과 비교하면 생산성적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육계의 개량육종, 사육기술, 사육환경, 사료영양 등이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11월 전체 41농가의 평균 사료요구율은 1.53, 평균체중 1.77kg, 사육기간 33일, 육성율 99.85%, 생산지수 351의 성적 결과가 도출되었다.

농협사료의 급여농가의 생산성적은 사육환경, 질병, 병아리, 사육방법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농장마다 사료급여 방법과 사육방법의 차이로 생산성적이 다르다고 판단된다. 우수한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병아리도 중요하지만 농장에서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매주, 매월, 매년 생산성적을 정리하고 개선점을 찾고 평가하는 것이 생산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농협사료

축산농가와 함께, 드림파트너 농협사료

## 프리미엄 어린송아지 사료

# 진심

송아지사료
신제품




농협사료에서 새롭게 출시한
프리미엄 송아지 신제품 "진심" 시리즈는

식이성 **설사를 최소화** 하여,
신생 **송아지의 성장부진을 예방**하는 **고품질 사료**입니다.

농협사료

제24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농협사료
8관왕

#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농협사료 이용 농가 수상자]

| | |
|---|---|
| 대통령상 | 박성순 님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 김영관 님 |
| 한국종축개량협회장상 | 성희수 님 |
| 농촌진흥청장상 | 김용대 님 |
| 축산물품질평가위원장상 | 손현균 님 |
|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상 | 임복래 님 |
|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상 | 권영섭 님 |
| 대회추진협의회장상 | 조수한 님 |